



President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 모음집

When Barack Obama in February, 2007 announced his candidacy for the U.S. presidency, he cited the 16th president. Abraham Lincoln, Obama said, "tells us there is power in words." During the two years that followed, Obama proved the truth of Lincoln's vision. As he addressed crowds gathered at sites from Lincoln's own Springfield, Illinois, to Berlin, Germany, the young Senator was compared to Ronald Reagan, John F. Kennedy, and other great Americans whose words earned them the respect, affection, and loyalty of their countrymen.

These pages share President Obama's words with our global readership. This book includes the complete text of the 44th President's Inaugural Address. Also featured are extended excerpts from eight other significant campaign and pre-presidential speeches. It is our hope that while the book itself is small, readers will discover that the vision captured in its pages is large.

버락 오바마는 2007년 2월 대통령 후보 출마 연설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인용했다. 오바마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오바마는 링컨의 비전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링컨의 고향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독일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젊은 상원의원 오바마의 연설은 로널드 레이건과 존 F 케네디를 비롯하여 뛰어난 연설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충성을 한 몸에 받았던 미국의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본 모음집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전세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본 책자에는 미국 제44대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 전문이 실려 있으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행한 중요한 연설과 대선 유세 연설 8편의 발췌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 책자의 분량 자체는 짧지만 그 속에 담긴 비전만큼은 원대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깨닫기 바란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Complete Text

전 문

- The Remaking of America** 1p 미국의 재건
The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2009 취임사(2009년 1월 20일)

Extended Excerpts

발 취 문

- Change Has Come To America** 10p 미국에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다
Election Night Remarks, November 4, 2008 대통령 선거일 연설 (2008년 11월 4일)
- A World That Stands As One** 14p 하나로 공존하는 세계
Remarks in Berlin, Germany, July 24, 2008 독일 베를린 연설 (2008년 7월 24일)
- A New Strategy for a New World** 20p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전략
Rebuilding Our Alliances, July 15, 2008 동맹 재건 (2008년 7월 15일)
- The America We Love** 31p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Independence, Missouri, June 30, 2008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2008년 6월 30일)
- A More Perfect Union** 38p 보다 완전한 통합
Philadelphia, Pennsylvania, March 18, 2008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2008년 3월 18일)
- Our Past, Future & Vision for America** 46p 우리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미국의 비전
Announcement for President
Springfield, Illinois, February 10, 2007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2007년 2월 10일)
- The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52p 2004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
July 27, 2004 (2004년 7월 27일)
- Remarks Against Going to War with Iraq** 57p 이라크전 반대 연설
October 2, 2002 (2002년 10월 2일)

The Remaking of America

The Inaugural Address, complete text (Washington, DC, January 20, 2009)

미국의 재건

취임사 전문 (2009년 1월 20일 워싱턴DC)

My fellow citizens: I stand here today humbled by the task before us, grateful for the trust you've bestowed, mindful of the sacrifices borne by our ancestors. I thank President Bush for his service to our nation, as well as the generosity and cooperation he has shown throughout this transition.

Forty-four Americans have now taken the presidential oath. The words have been spoken during rising tides of prosperity and the still waters of peace. Yet, every so often the oath is taken amidst gathering clouds and raging storms. At these moments, America has carried on not simply because of the skill or vision of those in high office, but because We the People have remained faithful to the ideals of our forbearers, and true to our founding documents. So it has been. So it must be with this generation of Americans.

That we are in the midst of crisis is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보내준 신뢰에 감사드리며 선조들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 행한 봉사과 대통령직 인수과정 전반에 걸쳐 보여준 관대함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마흔 네 명의 미국인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쳤습니다. 힘찬 번영의 파도와 잔잔한 평화의 물결 속에서 선서가 행해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과 성난 폭풍 한가운데에서 선서가 행해진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이나 비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 선조들의 이상을 충실히 따르고 건국 이념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속되어왔으며, 지금 세대에도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폭력과 증오의 방대한 조직망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



At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DC, 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s his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2009.

2009년 1월 20일 워싱턴DC 미 의회의사당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now well understood. Our nation is at war, against a far-reaching network of violence and hatred. Our economy is badly weakened, a consequence of greed and ir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some, but also our collective failure to make hard choices and prepare the nation for a new age. Homes have been lost; jobs shed; businesses shuttered. Our health care is too costly; our schools fail too many; and each day brings further evidence that the ways we use energy strengthen our adversaries and threaten our planet.

These are the indicators of crisis, subject to data and statistics. Less measurable but no less profound is a sapping of confidence across our land - a nagging fear that America's decline is inevitable, and the next generation must lower its sights. Today I say to you that the challenges we face are real. They are serious and they are many. They will not be met easily or in a short span of time. But know this, America - they will be met.

On this day, we gather because we have chosen hope over fear, unity of purpose over conflict and discord. On this day, we come to proclaim an end to the petty grievances and false promises, the recriminations and worn out dogmas, that for far too long have strangled our politics. We remain a young nation, but in the words of Scripture, the time has come to set aside childish things. The time has come to reaffirm our enduring spirit, to choose our better history, to carry forward that precious gift, that noble idea,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God-given promise that all are equal, all are free, and all deserve a chance to pursue their full measure of happiness.

In reaffirming the greatness of our nation, we understand that greatness is never a given. It must be earned. Our journey has never been one of shortcuts or settling for less. It has not been the path for the faint-hearted, for those who prefer leisure over work, or seek only the pleasures of riches and fame. Rather, it has been the risk-takers, the doers, the makers of things - some celebrated, but more often men and women obscure in their labor -

부 집단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인한 결과인 동시에 과감한 선택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집을 잃었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기업이 쓰러졌습니다. 의료 비용은 과중하고 학교는 부족하며 그릇된 에너지 소비 문화 때문에 외부의 적을 키우고 지구를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기의 징후들이며 통계와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의 상실은 그 정도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몰락은 불가항력이며 다음 세대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두려움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이 현실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들은 매우 심각하며 그 수 또한 많습니다.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이 점만은 기억하십시오. 이 과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갈등과 불화보다 단합된 목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를 옥죄어온 사사로운 불만과 거짓 약속, 상호 비방과 낡은 도그마의 종식을 선언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에서처럼 이제 어린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것을 버릴 때가 왔습니다. 불굴의 정신을 다지고 보다 나은 역사를 선택하며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소중한 이념, 값진 선물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마음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국의 위대함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위대함이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함은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결코 지름길을 선택하거나 타협하고 안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 우리의 여정은 의지가 약한 자, 일하기보다 놀기를 좋아하거나 부와 명예의 쾌락만을 좇는 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에 옮기며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부는 업적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묵묵한 노동 속에 잊혀진 경우가 더 많았던, 이들의 길이였으며 이들은 번영과 자유에 이르는 멀고 험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을 챙겨 짐을 싸고 새로운 삶을 찾아 먼 바다를 여행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서부에 정착했

“To those who cling to power through corruption and deceit and the silencing of dissent, know that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but that we will extend a hand if you are willing to unclench your fist.”



President Barack Obama makes a point during his Inaugural Address.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연설 도중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패와 속임수, 강요된 침묵을 통해 권력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은 그릇된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켜쥔 주먹을 펼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 것입니다."

who have carried us up the long, rugged path towards prosperity and freedom.

For us, they packed up their few worldly possessions and traveled across oceans in search of a new life.

For us, they toiled in sweatshops and settled the West, endured the lash of the whip and plowed the hard earth. For us, they fought and died, in places like Concord and Gettysburg, Normandy and Khe Sanh.

Time and again these men and women struggled and sacrificed and worked till their hands were raw so that we might live a better life. They saw America as bigger than the sum of our individual ambitions, greater than all the differences of birth or wealth or faction.

This is the journey we continue today. We remain the most prosperous, powerful nation on Earth. Our workers are no less productive than when this crisis began. Our minds are no less inventive, our goods and services no less needed than they were last week or last month or last year. Our capacity remains undiminished. But our time of standing pat, of protecting narrow interests and putting off unpleasant decisions, that time has surely passed. Starting today, we must pick ourselves up, dust ourselves off, and begin again the work of remaking America.

For everywhere we look, there is work to be done. The state of the economy calls for action, bold and swift, and we will act - not only to create new jobs, but to lay a new foundation for growth. We will build the roads and bridges, the electric grids and digital lines that feed our commerce and bind us together. We will restore science to its rightful place, and wield technology's wonders to raise health care's quality and lower its cost. We will harness the sun and the winds and the soil to fuel our cars and run our factories. And we will transform our schools and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meet the demands of a new age. All this we can do. All this we will do.

으며, 채찍질을 감내하고 굳은 땅을 일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들은 콩코드(Concord)와 게티스버그, 노르망디와 케산(Khe Sanh) 같은 전장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친 두 손으로 끊임없이 안간힘을 다하고 자신을 희생했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품은 야망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크며 출생 배경이나 재산 혹은 분파의 차이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의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작금의 위기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여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 우리의 창의성은 조금도 줄지 않았으며,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1주일 전이나 1개월 전이나 1년 전과 비교하여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 우리의 생산능력은 축소되지 않았습니. 반면에,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고수하며 과단성 있는 결정을 미루던 시대는 분명히 끝났습니. 바로 오늘부터 마음을 추스르고 먼지를 털어내고 미국을 재건하는 작업에 다시 돌입해야 합니다.

곳곳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대담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거래를 뒷받침하고 전국을 하나로 묶는 도로와 교량, 전력 시설과 디지털 망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위상을 회복시킬 것이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 체계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태양과 바람 그리고 토양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와 대학을 개혁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야심이 과도하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스템이 것처럼 거대한 계획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가 이미 달성한 과업들을, 자유로운 시민의 상상력이 공동의 목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용기와 결합될 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들의 발 아래 일대 지각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오랫동안 국력을 소진시켜온 공허한 정치적 다툼이 더이

Now, there are some who question the scale of our ambitions, who suggest that our system cannot tolerate too many big plans. Their memories are short. For they have forgotten what this country has already done, what free men and women can achieve when imagination is joined to common purpose, and necessity to courage.

What the cynics fail to understand is that the ground has shifted beneath them - that the stale political arguments that have consumed us for so long no longer apply. The question we ask today is not whether our government is too big or too small, but whether it works - whether it helps families find jobs at a decent wage, care they can afford, a retirement that is dignified. Where the answer is yes, we intend to move forward. Where the answer is no, programs will end. And those of us who manage the public's dollars will be held to account - to spend wisely, reform bad habits, and do our business in the light of day - because only then can we restore the vital trust between a people and their government.

Nor is the question before us whether the market is a force for good or ill. Its power to generate wealth and expand freedom is unmatched, but this crisis has reminded us that without a watchful eye, the market can spin out of control - that a nation cannot prosper long when it favors only the prosperous. The success of our economy has always depended not just on the size of our Gross Domestic Product, but on the reach of our prosperity, on the ability to extend opportunity to every willing heart - not out of charity, but because it is the surest route to our common good.

As for our common defense, we reject as false the choice between our safety and our ideals. Our Founding Fathers ... Our Founding Fathers, faced with perils we can scarcely imagine, drafted a charter to assure the rule of law and the rights of man, a charter expanded by the blood of generations. Those ideals still light the world, and we will not give them up for expedience's sake. And so to all other peoples and governments who are watch-

상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정부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이며-일반 가정에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와 저렴한 의료 서비스, 품위 있는 은퇴를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대답이 '예'라면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 대답이 '아니요'라면 프로그램은 중단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 자금을 관리하는 정부는 예산을 현명하게 지출하고 약속을 개혁하며 투명한 운영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시장의 선악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창출하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시장의 힘은 막강하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감시의 눈이 없다면 시장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유층만을 위하는 국가는 오래 번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공은 단순히 국내총생산 규모가 아니라 번영의 혜택이 개인에게까지 미치고 의욕을 가진 구성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국가적 역량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선적 배려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선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동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이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그릇된 관점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건국 시조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역경에 맞서 법에 의한 통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헌장을 수립했으며, 이 헌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흘린 피를 바탕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그 이상은 지금도 세계를 밝게 비추고 있으며 편의를 핑계로 이상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거대한 수도에서 제 부친이 태어난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다른 모든 국민들과 정부들에 고합니다. 미국은 평화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국가들의 친구이며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단순히 미사일과 탱크가 아닌 굳건한 동맹과 불굴의 신념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힘만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으며 멋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사용될 때에 한하여 국가의 힘이 신장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정당한 명분과 대외적 모범, 검양과 자제를 통해 안보가 확산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ing today, from the grandest capitals to the small village where my father was born: Know that America is a friend of each nation and every man, woman, and child who seeks a future of peace and dignity, and we are ready to lead once more.

Recall that earlier generations faced down fascism and communism not just with missiles and tanks, but with sturdy alliances and enduring convictions. They understood that our power alone cannot protect us, nor does it entitle us to do as we please. Instead, they knew that our power grows through its prudent use; our security emanates from the justness of our cause, the force of our example, the tempering qualities of humility and restraint.

We are the keepers of this legacy. Guided by these principles once more, we can meet those new threats that demand even greater effort - even greater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We will begin to responsibly leave Iraq to its people, and forge a hard-earned peace in Afghanistan. With old friends and former foes, we will work tirelessly to lessen the nuclear threat, and roll back the specter of a warming planet. We will not apologize for our way of life, nor will we waver in its defense, and for those who seek to advance their aims by inducing terror and slaughtering innocents, we say to you now that our spirit is stronger and cannot be broken; you cannot outlast us, and we will defeat you.

For we know that our patchwork heritage is a strength, not a weakness. We are a nation of Christians and Muslims, Jews and Hindus, and non-believers. We are shaped by every language and culture, drawn from every end of this Earth; and because we have tasted the bitter swill of civil war and segregation, and emerged from that dark chapter stronger and more united, we cannot help but believe that the old hatreds shall someday pass, that the lines of tribe shall soon dissolve, that as the world grows smaller, our common humanity shall reveal itself, and that America must play its role in ushering in a new era of peace.

우리는 이 같은 유산을 계승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원칙들을 따른다면 국가간의 협력과 이해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크를 자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이양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힘들게 얻어낸 평화를 굳건히 유지할 것입니다. 핵 위협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의 망령을 떨쳐 버리기 위해 기존의 우방들은 물론 과거 적성국들과도 끊임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구한 인명을 살해하고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압도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당신들을 섬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지닌 다양성의 유산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와 힌두교, 그리고 무신론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지구상 모든 언어와 문화를 토대로 형성됐습니다. 또한, 남북전쟁과 인종분리를 경험하고 어두운 역사를 극복하면서 더욱 강인해지고 더욱 단결됐기 때문에 과거의 증오는 언젠가 사라지고 인종간 경계는 해소될 것이며 세계가 좁아지면서 보편적인 인류애가 등장하고 미국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자국의 사회적 병폐를 서구 국가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고합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이 무엇을 파괴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건설했느냐로 당신들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부패와 속임수, 강요된 침묵을 통해 권력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은 그릇된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켜쥔 주먹을 펴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 것입니다.

빈곤국 국민들에 대하여, 우리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상수도를 지원하며 주린 배를 채우고 마음을 살찌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윤택한 국가들에 대하여, 우리는 더이상 나라 밖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상의 자원을 무한정 소비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계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황량한 사막과 깊은 산속을 정찰 중인 용맹한 국민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든 영웅들이

To the Muslim world, we seek a new way forward, based on mutual interest and mutual respect. To those leaders around the globe who seek to sow conflict, or blame their society's ills on the West: Know that your people will judge you on what you can build, not what you destroy. To those who cling to power through corruption and deceit and the silencing of dissent, know that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but that we will extend a hand if you are willing to unclench your fist.

To the people of poor nations, we pledge to work alongside you to make your farms flourish and let clean waters flow, to nourish starved bodies and feed hungry minds. And to those nations like ours that enjoy relative plenty, we say we can no longer afford indifference to suffering outside our borders, nor can we consume the world's resources without regard to effect. For the world has changed, and we must change with it.

As we consider the road that unfolds before us, we remember with humble gratitude those brave Americans who, at this very hour, patrol far-off deserts and distant mountains. They have something to tell us, just as the fallen heroes who lie in Arlington whisper through the ages. We honor them not only because they are the guardians of our liberty, but because they embody the spirit of service, a willingness to find meaning in something greater than themselves. And yet, at this moment - a moment that will define a generation - it is precisely this spirit that must inhabit us all.

For as much as government can do and must do, it is ultimately the faith and determination of the American people upon which this nation relies. It is the kindness to take in a stranger when the levees break, the selflessness of workers who would rather cut their hours than see a friend lose their job, which sees us through our darkest hours. It is the firefighter's courage to storm a stairway filled with smoke, but also a parent's willingness to nurture a child, that finally decides our fate.

Our challenges may be new. The instruments with

시대를 초월하여 낮게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봉사의 정신, 자신을 희생하여 대의를 추구하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정의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만큼 결국에 가서 국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결연한 의지입니다. 암흑의 시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제방이 무너져 집을 잃은 이재민을 돕는 친절함과 직장을 잃은 동료를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이타심에 있습니다. 화염으로 가득 찬 계단을 뛰어 오르는 소방관의 용기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성이 중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저력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식 역시 새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근면, 용기와 공정 경쟁, 관용과 호기심, 충성과 애국심 등 성공을 좌우하는 가치관들은 오래된 것들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은 진실합니다. 이것들은 역사를 통해 묵묵히 발전을 뒷받침한 저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이처럼 진실한 가치관들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책임감의 시대이며 모든 국민이 자신과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혼신을 다해 어려운 과업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고 미국의 국민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 아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의무입니다.

이는 시민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이자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닌 자신감의 원천이며-하느님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운명을 개척할 소명을 내렸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유와 신조가 전하는 본질이며 인종과 종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오늘 이 성대한 축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이며 60년 전만 해도 식당조차 출입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둔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앞에 두고 성스러운 선서를 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고 오늘을 기념합니다. 미국 건국 원년에 혹한의 추위 속에 일단의 애국자들이 얼어 붙은 강가에서 사그라져가는 모닥불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수도는 함락됐고 적군은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혁명의 성공을 조금도 자신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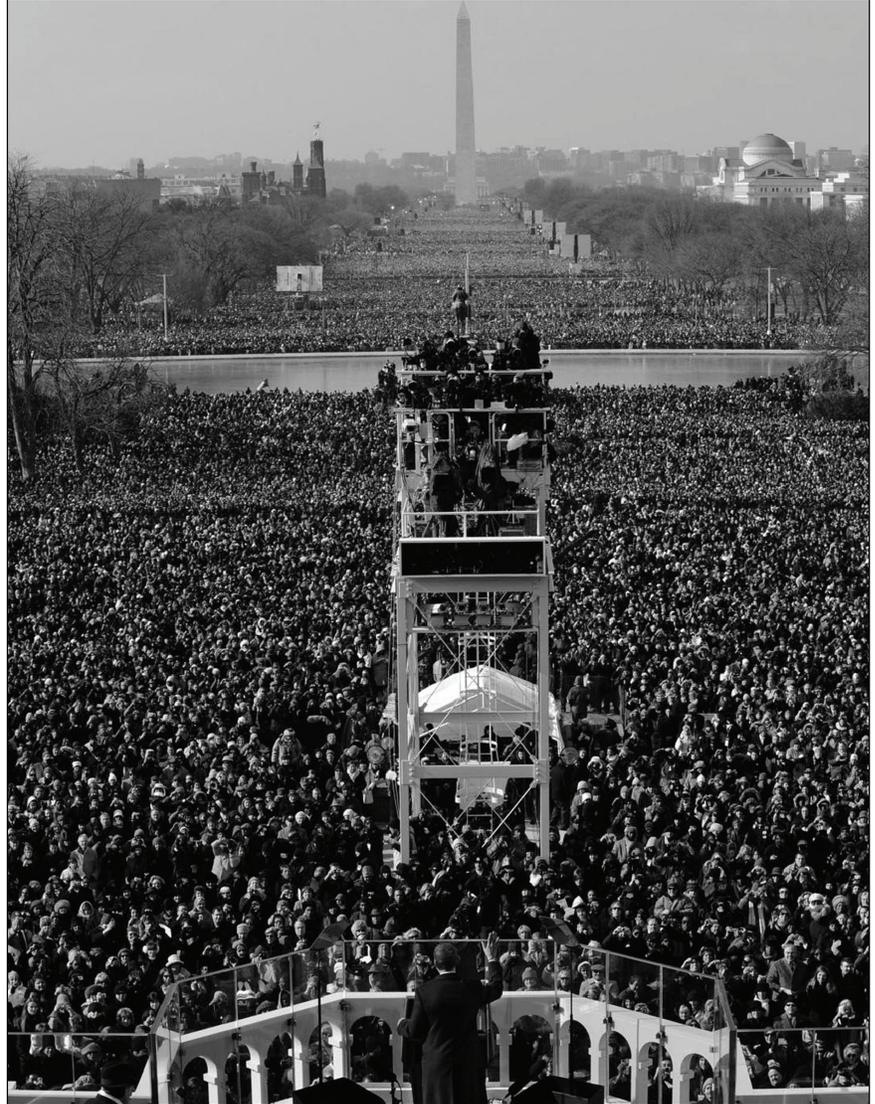
which we meet them may be new. But those values upon which our success depends - honesty and hard work, courage and fair play, tolerance and curiosity, loyalty and patriotism - these things are old. These things are true. They have been the quiet force of progress throughout our history. What is demanded then is a return to these truths. What is required of us now is a new era of responsibility - a recognition, on the part of every American, that we have duties to ourselves, our nation and the world, duties that we do not grudgingly accept but rather seize gladly, firm in the knowledge that there is nothing so satisfying to the spirit, so defining of our character, than giving our all to a difficult task.

This is the price and the promise of citizenship. This is the source of our confidence - the knowledge that God calls on us to shape an uncertain destiny. This is the meaning of our liberty and our creed, why men and women and children of every race and every faith can join in celebration across this magnificent mall, and why a man whose father less than sixty years ago might not have been served at a local restaurant can now stand before you to take a most sacred oath.

So let us mark this day with remembrance, of who we are and how far we have traveled. In the year of America's birth, in the coldest of months, a small band of patriots huddled by dying campfires on the shores of an icy river. The capital was abandoned. The enemy was advancing. The snow was stained with blood. At a moment when the outcome of our revolution was most in doubt, the father of our nation ordered these words be read to the people:

없던 그 순간 건국 시조들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돌려 읽게 했습니다.

"후대에 이야기하자 오로지 희망과 원칙만이 살아남은 혹한의 겨울에 공동의 위험에 처한 도시와 국가가 그에 맞



Vast crowds fill the National Mall in Washington, DC, to hear President Barak Obama's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2009.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듣기 위해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운집한 군중.

서 일어섰다고."

국민 여러분, 공동의 위험에 처한 이 역경의 겨울에 시대를 초월한 선조들의 경구를 상기합니다. 희망과 원칙을 간직한 채 다시 한번 차가운 격류를 헤치고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를 폭풍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결코 여정을 포기하거나

"Let it be told to the future world ... that in the depth of winter, when nothing but hope and virtue could survive ... that the city and the country, alarmed at one common danger, came forth to meet [it]."

America, in the face of our common dangers, in this winter of our hardship, let us remember these timeless words. With hope and virtue, let us brave once more the icy currents, and endure what storms may come. Let it be said by our children's children that when we were tested, we refused to let this journey end, that we did not turn back nor did we falter; and with eyes fixed on the horizon and God's grace upon us, we carried forth that great gift of freedom and delivered it safely to future generations.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뒤돌아서거나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등에 업고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묵묵히 전진하여 자유라는 소중한 선물을 후대에 무사히 전했다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그리고 미국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

Change Has Come to America

Election night remarks (Chicago, Illinois, November 4, 2008)

미국에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다

대통령 선거일 연설 (2008년 11월 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If there is anyone out there who still doubts that America is a place where all things are possible; who still wonders if the dream of our founders is alive in our time; who still questions the power of our democracy, tonight is your answer.

It's the answer told by lines that stretched around schools and churches in numbers this nation has never seen; by people who waited three hours and four hours, many for the very first time in their lives,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is time must be different; that their voice could be that difference.

It's the answer spoken by young and old, rich and poor, Democrat and Republican, black, white, Latino, Asian, Native American, gay, straight, disabled and not disabled-Americans who sent a message to the world that we have never been a collection of Red States and Blue States: we are, and always will b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s the answer that led those who have been told for so long by so many to be cynical, and fearful, and doubtful of what we can achieve to put their hands on the arc of history and bend it once more toward the hope of a better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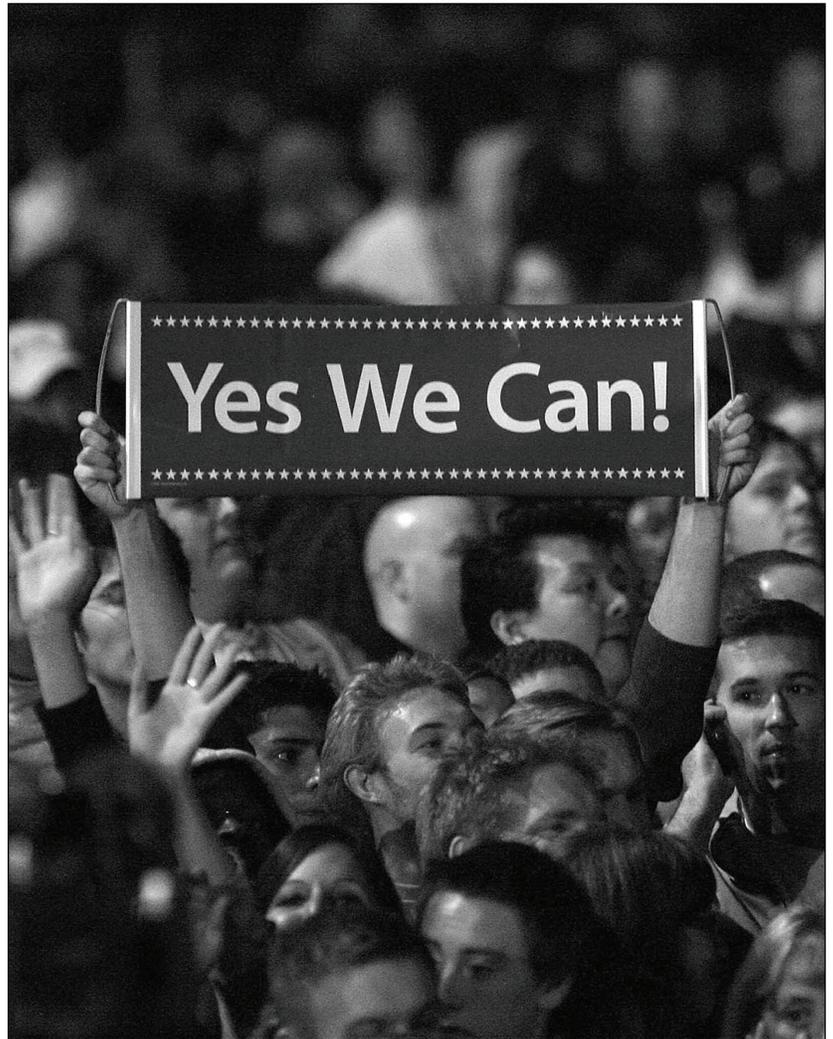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tonight, because of what we did on this day, in this election, at this defining moment, change has come to America.

...

I was never the likeliest candidate for this

만약 미국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국 시조들의 이상이 오늘날 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의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해답은 학교와 교회 앞에 길게 늘어선 사상 유례 없는 숫자의 유권자 행렬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번에는 아마도 달라져야 한다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At the Obama victory rally in Chicago, a supporter holds a sign reading, "Yes We Can!"

오바마 당선 축하 집회에 참가한 시카고의 어느 지지자가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

"Tonight we proved
once more that the true strength of our nation comes not
from the might of our arms or the scale of our wealth,
but from the enduring power of our ideals: democracy,
liberty, opportunity, and unyielding hope."



Berliners greet Barack Obama after his speech July 24, 2008

2008년 7월 24일 오바마의 연설 직후 베를린 시민들이 그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늘밤 우리는
미국의 진정한 저력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민주주의, 자유, 기회, 꺾이지 않는 희망 같은 국가적 이상을
추구하는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

office. We didn't start with much money or many endorsements. Our campaign was not hatched in the halls of Washington - it began in the backyards of Des Moines and the living rooms of Concord and the front porches of Charleston.

It was built by working men and women who dug into what little savings they had to give five dollars and ten dollars and twenty dollars to this cause. It grew strength from the young people who rejected the myth of their generation's apathy; who left their homes and their families for jobs that offered little pay and less sleep; from the not-so-young people who braved the bitter cold and scorching heat to knock on the doors of perfect strangers; from the millions of Americans who volunteered, and organized, and proved that more than two centuries later,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has not perished from this Earth. This is your victory.

The road ahead will be long. Our climb will be steep. We may not get there in one year or even one term, but America - I have never been more hopeful than I am tonight that we will get there. I promise you - we as a people will get there.

There will be setbacks and false starts. There are many who won't agree with every decision or policy I make as President, and we know that government can't solve every problem. But I will always be honest with you about the challenges we face. I will listen to you, especially when we disagree. And above all, I will ask you to join in the work of remaking this nation the only way it's been done in America for two-hundred and twenty-one years - block by block, brick by brick, calloused hand by calloused hand.

And to those Americans whose support I have yet to earn - I may not have won your vote, but I hear your voices, I need your help, and I will be your President too.

가운데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그 중 일부는 이번 대선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은 노소와 빈부, 민주와 공화, 흑인과 백인, 라틴계와 아시아계, 아메리카 인디언, 동성애자, 장애인, 일반인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제시했으며, 전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민주당 지지 주(州)와 공화당 지지 주로 양분된 나라가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합된 미합중국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해답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에 대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두려워하는 태도를 품도록 오랜 시간 강요 받아온 국민들로 하여금 역사의 궤적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보다 나은 희망의 미래로 방향을 틀게끔 이끌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이룩한 과업 덕분에 드디어 미국에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선거 자금도, 지지 기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경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선거유세는 워싱턴의 으리으리한 홀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디모인의 뒷마당에서, 콩코드의 거실에서, 찰스턴의 현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명분에 동참하기 위해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털어 5달러, 10달러, 20달러를 기부한 노동자들로부터 유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집과 가족을 떠나 낮은 급료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유세 업무를 수행한 젊은이들과,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폭염 속에서 낮선 유권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한 의연한 지지자들과, 2세기가 지난 지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소멸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수백만 자원봉사자들이 유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멀 것이며 고개는 가파를 것입니다. 1년 안에, 혹은 제 임기 안에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밤처럼 벅찬 희망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And to all those watching tonight from beyond our shores, from parliaments and palaces to those who are huddled around radios in the forgotten corners of our world-our stories are singular, but our destiny is shared, and a new dawn of American leadership is at hand. To those who would tear this world down-we will defeat you. To those who seek peace and security-we support you. And to all those who have wondered if America's beacon still burns as bright-tonight we proved once more that the true strength of our nation comes not from the might of our arms or the scale of our wealth, but from the enduring power of our ideals: democracy, liberty, opportunity, and unyielding hope.

For that is the true genius of America-that America can change. Our union can be perfected. And what we have already achieved gives us hope for what we can and must achieve tomorrow.

...

This is our moment. This is our time-to put our people back to work and open doors of opportunity for our kids; to restore prosperity and promote the cause of peace; to reclaim the American Dream and reaffirm that fundamental truth-that out of many, we are one; that while we breathe, we hope, and where we are met with cynicism, and doubt, and those who tell us that we can't, we will respond with that timeless creed that sums up the spirit of a people: Yes We Can. ■

장애물과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수립한 정책이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으며,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당면한 도전들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입니다. 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일수록 더더욱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21년 동안 미국을 지탱해온 유일한 방식으로-블록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거친 손 하나하나가 모여-국가 재건 작업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의 표는 얻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여러분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국 의회와 왕궁에서, 그리고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외진 구석에서 라디오 주위에 둘러 앉아 제 연설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합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를지 모르나 모두의 운명은 하나이며 미국 리더십의 새로운 새벽이 이제 막 동트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엎으려는 세력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멸할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이라는 등대가 여전히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오늘밤 우리는 미국의 진정한 저력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민주주의, 자유, 기회, 꺾이지 않는 희망 같은 국가적 이상을 추구하는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진정한 정신이며 미국은 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룩한 목표들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룩할 수 있고 이룩해야만 하는 목표들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후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며, 번영으로 복귀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미국의 이상을 재천명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재확인할 때입니다. 우리는 숨쉬고 희망을 간직하며 불가능을 말하는 냉소와 회의에 맞서 시대를 초월하여 미국의 정신을 함축한 신조(信條)인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대응할 것입니다. ■

A World That Stands As One

Exploring the responsibilities of global citizenship (Berlin, Germany, July 24, 2008)

하나로 공존하는 세계

글로벌 시민 사회의 책임 모색 (2008년 7월 24일 독일 베를린)

People of the world - look at Berlin! Look at Berlin, where Germans and Americans learned to work together and trust each other less than three years after facing each other on the field of battle.

Look at Berlin, where the determination of a people met the generosity of the Marshall Plan and created a German miracle; where a victory over tyranny gave rise to NATO, the greatest alliance ever formed to defend our common security.

Look at Berlin, where the bullet holes in the buildings and the somber stones and pillars near the Brandenburg Gate insist that we never forget our common humanity.

People of the world - look at Berlin, where a wall came down, a continent came together, and history proved that there is no challenge too great for a world that stands as one.

Sixty years after the airlift, we are called upon again. History has led us to a new crossroad, with new promise and new peril. The fall of the Berlin Wall brought new hope. But that very closeness has given rise to new dangers - dangers that cannot be contained within the borders of a country or by the distance of an ocean.

In this new world, such dangerous currents have swept along faster than our efforts to contain them. That is why we cannot afford to be divided. No one nation, no matter how large or powerful, can defeat such challenges alone. None of us can deny these threats, or escape responsibility in meeting them.

Yet, in the absence of Soviet tanks and a terrible wall,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베를린을 주목하십시오! 전장에서 서로를 향한 총구를 거둔 지 불과 3년 만에 독일과 미국이 상호 협력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 베를린을 주목하십시오.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마샬플랜과 결합하여 독일의 기적을 일궈냈으며 독재에 맞선 승리가 공동의 안보를 보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동맹인 나토를 결성시킨 장소인 베를린을 주목하십시오.

건물에 박혀 있는 총탄의 흔적과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부근의 거무스름한 돌과 기둥들이 공동의 인류애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유적인 베를린을 주목하십시오.

전세계 시민 여러분, 장벽이 무너지고 대륙이 합쳐졌으며 하나로 공존하는 세계를 가로막는 거대한 도전은 지속될 수 없다는 진리를 역사 속에서 증명한 베를린을 주목하십시오.

베를린 공수작전이 감행된 지 60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새로운 갈림길로 인도했으며 약속과 위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새로운 희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근접성 때문에 새로운 위험이-일국의 국경 내에서 혹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해결될 수 없는 위협이-야기됐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그러한 위험은 우리의 방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훨씬 빠른 속도로 급물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을 방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어느 국가든 혼자 힘으로 그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위협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그에 맞서 대항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탱크와 끔찍한 장벽이 사라진 지금 그 진리는 쉽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솔직히 인정하지만 우리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 걸돌고 있으며 공동의 운명을 망각한 적이

“

"The walls between old allies on either side of the Atlantic cannot stand ...
The walls between races and tribes ;
natives and immigrants; Christian
and Muslim and Jew cannot stand.
These now are the walls we must tear down..."



Barack Obama speaks in Berlin, Germany, July 24, 2008.
2008년 7월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버락 오바마가 연설을 하고 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오랜 동맹간의 장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종과 부족, 원주민과 이주민,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간의 장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야 할 장벽들입니다....."

”

it has become easy to forget this truth. And if we're honest with each other, we know that sometime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we have drifted apart, and forgotten our shared destiny.

In Europe, the view that America is part of what has gone wrong in our world, rather than a force to help make it right, has become all too common. In America, there are voices that deride and deny the importance of Europe's role in our security and our future. Both views miss the truth-that Europeans today are bearing new burdens and taking more responsibility in critical parts of the world; and that just as American bases built in the last century still help to defend the security of this continent, so does our country still sacrifice greatly for freedom around the globe.

Yes, there have been differences between America and Europe. No doub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future. But the burdens of global citizenship continue to bind us together. A change of leadership in Washington will not lift this burden. In this new century, Americans and Europeans alike will be required to do more - not less.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is not a choice; it is the one way, the only way, to protect our common security and advance our common humanity.

That is why the greatest danger of all is to allow new walls to divide us from one another.

The walls between old allies on either side of the Atlantic cannot stand. The walls between the countries with the most and those with the least cannot stand. The walls between races and tribes; natives and immigrants; Christian and Muslim and Jew cannot stand. These now are the walls we must tear down.

History reminds us that walls can be torn down. But the task is never easy. True partnership and true progress requires constant work and sustained sacrifice. They require sharing the burdens of development and diplomacy; of progress and peace. They require allies who

많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세계를 바로잡을 원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원흉이라는 인식이 유럽 내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미래에 있어서 유럽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인하고 조소하는 시각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관점 모두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각국은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세계 요처에서 보다 확대된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건설된 미군 기지들이 여전히 유럽의 안보를 수호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역시 전세계 자유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이견이 있어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앞으로도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민 사회의 의무는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 의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미국과 유럽은 너나 없이 더 많은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임무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간 파트너십과 협력은 선택이 아닙니다. 공동의 안보를 보장하고 공동의 인류애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길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새로운 장벽의 출현이 모두에게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오랜 동맹 간의 장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의 장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종과 부족, 원주민과 이주민,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간의 장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야 할 장벽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과 진정한 진보는 부단한 노력과 꾸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개발과 외교, 진보와 평화의 의무를 함께 질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하는 동맹을 요구합니다.

미국이 내부지향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럽이 내부지향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에게 유럽만 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었던 강력한 연대로 전세계를 잇는 가교를 건설할 때

will listen to each other, learn from each other and, most of all, trust each other.

That is why America cannot turn inward. That is why Europe cannot turn inward. America has no better partner than Europe. Now is the time to build new bridges across the globe as strong as the one that bound us across the Atlantic. Now is the time to join together, through constant cooperation, strong institutions, shared sacrifice, and a global commitment to progress,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nd this is the moment when our nations - and all nations - must summon that spirit anew.

This is the moment when we must defeat terror and dry up the well of extremism that supports it. This threat is real and we cannot shrink from our responsibility to combat it. If we could create NATO to face down the Soviet Union, we can join in a new and global partnership to dismantle the networks that have struck in Madrid and Amman; in London and Bali; in Washington and New York. If we could win a battle of ideas against the communists, we can stand with the vast majority of Muslims who reject the extremism that leads to hate instead of hope.

This is the moment when we must renew our resolve to rout the terrorists who threaten our security in Afghanistan, and the traffickers who sell drugs on your streets. No one welcomes war. I recognize the enormous difficulties in Afghanistan. But my country and yours have a stake in seeing that NATO's first mission beyond Europe's borders is a success. For the people of Afghanistan, and for our shared security, the work must be done. America cannot do this

입니다. 지금이야말로 21세기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협력과 강력한 제도, 공동의 희생, 진보를 향한 글로벌 의지를 통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세계 각국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테러를 근절하고 배후에서 지원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씨를 말려야 할 순간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나토를 창설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드리드와 암만, 런던과 발리, 워싱턴과 뉴욕을 공격한 테러 네트워크를 섬멸하기 위해 합심하여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이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희망이 아닌 증오를 조장하는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대다수



A transfer ceremony in Hilla, Iraq, October 23, 2008.

2008년 10월 23일 이라크 힐라(Hilla)에서의 이양식 장면

alone. The Afghan people need our troops and your troops; our support and your support to defeat the Taliban and al Qaeda, to develop their economy, and to help them rebuild their nation. We have too much at stake to turn back now.

This is the moment when we must renew the goal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t is time to secure all loose nuclear materials; to stop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to reduce the arsenals from another era. This is the moment to begin the work of seeking the peace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his is the moment when every nation in Europe must have the chance to choose its own tomorrow free from the shadows of yesterday. In this century, we need a strong European Union that deepens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is continent, while extending a hand abroad. In this century - in this city of all cities - we must reject the Cold War mind-set of the past, and resolve to work with Russia when we can, to stand up for our values when we must, and to seek a partnership that extends across this entire continent.

This is the moment when we must build on the wealth that open markets have created, and share its benefits more equitably. Trade has been a cornerstone of our growth and global development. But we will not be able to sustain this growth if it favors the few, and not the many. Together, we must forge trade that truly rewards the work that creates wealth, with meaningful protections for our people and our planet. This is the moment for trade that is free and fair for all.

This is the moment we must help answer the call for a new dawn in the Middle East. My country must stand with yours and with Europe in sending a direct message to Iran that it must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We must support the Lebanese who have marched and bled for democracy, and the Israelis and Palestinians who seek a secure and lasting peace. And despite past differences, this is the moment when the world should support

무슬림들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와 독일 거리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조직을 소탕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질 때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나토가 수행하는 첫 번째 임무인 이번 임무가 성공하기를 기대할 만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 이번 임무는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임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미국과 독일 병력을 필요로 하며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분쇄하고 경제를 개발하며 국가 재건을 돕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등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핵무기가 사라진 세계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재수립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관리가 느슨한 핵 원료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며 냉전 시대 핵무기 보유고를 감축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핵무기가 사라진 세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유럽 각국이 구시대의 잔재로부터 탈출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금세기에 우리는 해외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동시에 유럽 대륙의 번영과 안보를 확대하는 강한 유럽연합을 필요로 합니다. 금세기에 우리는 도시 중의 도시인 이곳에서 과거의 냉전 사고를 혁파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협력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신장하며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장 개방을 통해 창출한 부를 더욱 확대하고 그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나눌 때입니다. 무역은 성장과 글로벌 개발의 초석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가 성장의 혜택을 누린다면 그러한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를 창출하는 노력에 대한 진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주민과 지구를 의미 있게 보호하는 무역을 함께 이룩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이룩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동의 새로운 새벽을 요청하는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공동으로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피를 흘린 레바논

the millions of Iraqis who seek to rebuild their lives, even as we pass responsibility to the Iraqi government and finally bring this war to a close.

This is the moment when we must come together to save this planet. Let us resolve that we will not leave our children a world where the oceans rise and famine spreads and terrible storms devastate our lands. Let us resolve that all nations - including my own - will act with the same seriousness of purpose as has your nation, and reduce the carbon we send into our atmosphere.

This is the moment to give our children back their future. This is the moment to stand as one.

People of Berlin-and people of the world-the scale of our challenge is great. The road ahead will be long. But I come before you to say that we are heirs to a struggle for freedom. We are a people of improbable hope. With an eye toward the future, with resolve in our hearts, let us remember this history, and answer our destiny, and remake the world once again ■

주민들,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세계가 과거의 의견차를 접고 미국이 이라크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고 종전을 추진하는 이 순간에도 국가 재건을 도모하는 수백만 이라크 주민들을 지원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해안선이 상승하고 기아가 확산되며 거대한 태풍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지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집시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독일과 같은 진지한 목적 의식을 품고 행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겠다는 결의를 다집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돌려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로 공존할 때입니다.

베를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 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거대합니다.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자유를 향한 투쟁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불굴의 희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눈은 미래를 응시하고 가슴에는 의지를 새긴 채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운명에 화답하고 다시 한번 세계를 재건합니다. ■

A New Strategy for a New World

Rebuilding Our Alliances (Washington, DC, July 15, 2008)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전략

동맹 재건 (2008년 7월 15일 워싱턴DC)

Sixty-one years ago, George Marshall announced the plan that would come to bear his name. Much of Europe lay in ruins. The United States faced a powerful and ideological enemy intent on world domination. This menace was magnified by the recently discovered capability to destroy life on an unimaginable scale. The Soviet Union didn't yet have an atomic bomb, but before long it would.

The challenge facing the greatest generation of Americans- the generation that had vanquished fascism on the battlefield -was how to contain this threat while extending freedom's frontiers. Leaders like Truman and Acheson, Kennan and Marshall, knew that there was no single decisive blow that could be struck for freedom.

We needed a new overarching strategy to meet the challenges of a new and dangerous world.

Such a strategy would join overwhelming military strength with sound judgment. It would shape events not just through military force, but through the force of our ideas; through economic power, intelligence and diplomacy. It would support strong allies that freely shared our ideals of liberty and democracy; open markets and the rule of law. It would foster new international institu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NATO, and the World Bank, and focus on every corner of the globe. It was a strategy that saw clearly the world's dangers, while seizing its promise.

What is needed? What can best be done? What must be done?

Today's dangers are different, though no less grave. The power to destroy life on a catastrophic scale now risks falling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The future of our securi-

지 금으로부터 60년 전, 조지 마셜 장군은 후대에 자신의 이름이 붙게 될 중요한 플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막강한 상대와 이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협은 최근 들어 밝혀진 것처럼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파괴력에 의해 증폭되었습니다. 그 무렵 소련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럴 날이 머지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전쟁에서 파시즘을 물리친 세대가 당면한 도전은 어떻게 하면 자유의 지평을 넓히는 가운데 그와 같은 위협을 축소시키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트루먼과 애치슨, 케년과 마셜 같은 지도자들은 단 한방에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위협을 극복할 새로운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전략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확한 판단력의 결합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념적 우월성과 경제력, 정보력과 외교력을 통해서 그 같은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자유의 이상과 외교, 시장 개방과 법에 의한 지배를 자유롭게 신봉하는 동맹국을 지원했습니다. 유엔과 나토,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의 창설을 뒷받침했으며 전세계 모든 지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가 처한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기회를 품에 안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작금의 위협은 과거와는 달라졌지만 그 심각성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재앙의 힘이 테러범의 손에 들어갈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지구 환경은 해외 원유와 가스 의존도에 불모로 잡혀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산악 지방의 동굴들에서 이란 지하 핵실험 시설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거리나 군사력만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ty - and our planet - is held hostage to our dependence on foreign oil and gas. From the cave-spotted mountains of northwest Pakistan, to the centrifuges spinning beneath Iranian soil, we know that the American people cannot be protected by oceans or the sheer might of our military alone.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brought this new reality into a terrible and ominous focus. On that bright and beautiful day, the world of peace and prosperity that was the legacy of our Cold War victory seemed to suddenly vanish under rubble, and twisted steel, and clouds of smoke.

But the depth of this tragedy also drew out the decency and determination of our nation. At blood banks and vigils; in schools and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mericans were united - more united, even, than we were at the dawn of the Cold War. The world, too, was united against the perpetrators of this evil act, as old allies, new friends, and even long-time adversaries stood by our side. It was time - once again - for America's might and moral persuasion to be harnessed; it was time to once again shape a new security strategy for an ever-changing world.

Imagine, for a moment, what we could have done in those days, and months, and years after 9/11.

We could have deployed the full force of American power to hunt down and destroy Osama bin Laden, al Qaeda, the Taliban, and all of the terrorists responsible for 9/11, while supporting real security in Afghanistan.

We could have secured loose nuclear materials around the world, and updated a 20th century non-proliferation framework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We could have investe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to grow our economy, save our planet, and end the tyranny of oil.

We could have strengthened old alliances, formed new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현실을 끔찍하고 암울한 전망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명했던 이 날, 냉전을 극복하고 건설한 평화와 번영의 세계는 엇가락처럼 흰 철근과 시멘트 잔해 그리고 검은 연기 속으로 한 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우리 조국의 결연한 의지와 송고한 정신이 함께 솟아났습니다. 헌혈시설과 추모식장에서, 그리고 학교와 의회에서, 국민들은 과거 냉전 시절보다 더욱 굳건하게 단결했습니다. 세계 각국 역시 이 잔학한 행위에 한 뜻으로 맞섰으며 오랜 동맹과 새로운 우방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적대국들까지도 우리의 편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저력과 설득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수립할 순간이었습니다.

9·11테러 이후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흐르고 몇 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잠시 상상해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실질적 안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탈레반, 9·11테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세력을 추적하여 섬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처에서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핵 원료를 통제하고 20세기에 구축된 핵확산방지체제를 21세기 현실에 맞게 재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구를 구하고 석유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기구를 개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역사의 급류에 몸을 던져 군인과 교사, 평화봉사단원과 경찰이 되어 조국에 봉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구와 철도, 발전소를 보호하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여 국토 안보를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partnerships, and renew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advance peace and prosperity.

We could have called on a new generation to step into the strong currents of history, and to serve their country as troops and teachers, Peace Corps volunteers and police officers.

We could have secured our homeland-investing in sophisticated new protection for our ports, our trains and our power plants.

We could have rebuilt our roads and bridges, laid down new rail and broadband and electricity systems, and made college affordable for every American to strengthen our ability to compete.

We could have done that.

Instead, we have lost thousands of American lives, spent nearly a trillion dollars, alienated allies and neglected emerging threats - all in the cause of fighting a war for well over five years in a country that had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the 9/11 attacks.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have accomplished every mission we have given them. What's missing in our debate about Iraq - what has been missing since before the war began - is a discussion of the strategic consequences of Iraq and its dominance of our foreign policy.

This war distracts us from every threat that we face and so many opportunities we could seize. This war diminishes our security, our standing in the world, our military, our economy, and the resources that we need to confron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By any measure, our single-minded and open-ended focus on Iraq is not a sound strategy for keeping America safe.

I a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lead this country in a new direction-to seize this moment's promise. Instead of being distracted from the most pressing

우리는 도로와 교량을 재건하고 철도와 광통신망 그리고 송전망을 구축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국민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끔 보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수천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3조 달러에 이르는 돈을 허비했으며 동맹을 멀리하고 새로운 위협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모두가 9·11테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와 5년 넘게 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라크 논쟁에서 한 가지 배제된 것이 있다면-전쟁 발발 이래 줄곧 배제되어온 것이 있다면-그것은 이라크전의 전략적 결과와 그에 대한 외교 정책의 집중 현상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협들에 대한 경제심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무수한 기회들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군사력, 경제력, 21세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필



Obama supporters in New Delhi, India, June 24, 2008.

2008년 6월 24일 인도 뉴델리의 오바마 지지자들.

"I will focus this strategy on five goals: ending the war in Iraq responsibly; finishing the fight against al Qaeda and the Taliban; securing all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from terrorists and rogue states; achieving true energy security; and rebuilding our alliances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 veteran of World War II is moved by emotion at a Veteran's Day ceremony in New York City, November 11, 2003.
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 한 명이 2003년 11월 11일
뉴욕시 참전군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감회에 젖어 있다.

"저는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5대 목표에 초점을 맞춰 이 전략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5대 목표는 이라크전을 책임 있게 종식 시키고, 알카에다 및 탈레반과의 전투를 마무리 짓고, 테러범과 불량국가로부터 핵무기와 핵 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진정한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21세기의 도전에 맞서 동맹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threats that we face, I want to overcome them. Instead of pushing the entire burden of our foreign policy on to the brave men and women of our military, I want to use all elements of American power to keep us safe, and prosperous, and free. Instead of alienating ourselves from the world, I want America - once again - to lead.

As President, I will pursue a tough, smart and principled national security strategy- one that recognizes that we have interests not just in Baghdad, but in Kandahar and Karachi, in Tokyo and London, in Beijing and Berlin.

I will focus this strategy on five goals essential to making America safer: ending the war in Iraq responsibly; finishing the fight against al Qaeda and the Taliban; securing all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from terrorists and rogue states; achieving true energy security; and rebuilding our alliances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hat's why I strongly stand by my plan to end this war. Now, Prime Minister Maliki's call for a timetable for the removal of U.S. forces presents a real opportunity. It comes at a time when the American general in charge of training Iraq's Security Forces has testified that Iraq's Army and Police will be ready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Iraq's security in 2009. Now is the time for a responsible redeployment of our combat troops that pushes Iraq's leaders toward a political solution, rebuilds our military, and refocuses on Afghanistan and our broader security interests.

At some point, a judgment must be made. Iraq is not going to be a perfect place, and we don't have unlimited resources to try to make it one. We are not going to kill every al Qaeda sympathizer, eliminate every trace of Iranian influence, or stand up a flawless democracy before we leave. ... In fact, true success in Iraq - victory in Iraq - will not take place in a surrender ceremony where an enemy lays down their arms.

True success will take place when we leave Iraq to a government that is taking responsibility for its future - a

요한 자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라크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맹목적인 집중은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타당한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시대가 약속하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대신에 그것들을 극복할 것입니다. 외교 정책의 의무를 장병들에게 모조리 떠넘기는 대신에 국력의 모든 요소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자유를 수호할 것입니다. 세계를 멀리 하는 대신에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강력하고 현명하며 원칙에 충실한 국가 안보 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바그다드뿐만 아니라 칸다하르와 카라치, 도쿄와 런던, 베이징과 베를린에도 우리의 이해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5대 목표에 초점을 맞춰 이 전략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5대 목표는 이라크전을 책임 있게 종식 시키고, 알카에다 및 탈레반과의 전투를 마무리 짓고, 테러범과 불량 국가로부터 핵무기와 핵 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진정한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21세기의 도전에 맞서 동맹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계획을 확고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리키 총리가 미군 철수 일정을 요청한 것은 우리에게서 실질적인 기회를 의미합니다. 말리키 총리의 요청은 이라크군 훈련을 감독하고 있는 미군 장군이 2009년에 이라크군과 경찰이 국내 치안을 책임질 준비를 끝마칠 것이라고 증언한 것과 때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라크 지도자들이 정치적 해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미군 조식을 재건하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책임 있는 병력 재배치를 수행할 시기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라크가 완전무결한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한정 투입할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라크를 떠나기 전에 알카에다 동조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사살하거나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지우거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에서의 진정한 성공은-이라크에서의 승리는-적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government that prevents sectarian conflict, and ensures that the al Qaeda threat which has been beaten back by our troops does not reemerge. That is an achievable goal if we pursue a comprehensive plan to press the Iraqis stand up.

This is the future that Iraqis want. This is the future that the American people want. And this is what our common interests demand.

And this is the future we need for our military. We cannot tolerate this strain on our forces to fight a war that hasn't made us safer. I will restore our strength by ending this war, completing the increase of our ground forces by 65,000 soldiers and 27,000 marines, and investing in the capabilities we need to defeat conventional foes and meet the unconventional challenges of our time.

I want Iraqi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future, and to reach the political accommodation necessary for long-term stability. That's victory. That's success. That's what's best for Iraq, that's what's best for America, and that's why I will end this war as President.

The central front in the war on terror is not Iraq, and it never was. That's why the second goal of my new strategy will be taking the fight to al Qaeda in Afghanistan and Pakistan.

It is unacceptable that almost seven years after nearly 3,000 Americans were killed on our soil, the terrorists who attacked us on 9/11 are still at large. Osama bin Laden and Ayman al-Zawahari are recording messages to their followers and plotting more terror. The Taliban controls parts of Afghanistan. Al Qaeda has an expanding base in Pakistan that is probably no farther from their old Afghan sanctuary than a train ride from Washington to Philadelphia. If another attack on our homeland comes, it will likely come from the same region where 9/11 was planned. And yet today, we have five times more troops in Iraq than Afghanistan.

I will send at least two additional combat brigades to

진정한 성공은 자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분과간 분쟁을 방지하고 우리 군대가 격퇴한 알카에다의 위협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정부에 이라크를 이양하는 순간 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라크 국민들의 자립을 촉구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라크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양국 공동의 이해관계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군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과중한 임무를 떠안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육군 6만 5천 명, 해병 2만 7천 명 등 지상군 병력을 증강하며 재래전 수행과 비재래전 대비에 필요한 역량에 투자하여 국방력을 복구할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장기적인 국가 안정에 필요한 정치 제도를 수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이라크에 최선의 길이며, 이것이 미국에 최선의 길이며, 이것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은 이라크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내 알카에다 조직 공략을 두 번째 전략 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거의 3천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9·11테러를 일으킨 테러 집단이 여전히 활발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아이만 알 자와하리는 녹음된 지령을 추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또 다른 테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내 여러 지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는 파키스탄 국경 안에 기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기존 아프가니스탄 근거지와는 워싱턴-필라델피아 간 기차역 구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공격이 감행된다면 9·11테러가 꾸며진 장소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라크 주둔 병력은 아프가니스탄 병력의 다섯 배에 이릅니다.

Afghanistan, and use this commitment to seek greater contributions - with fewer restrictions - from NATO allies. I will focus on training Afghan security forces and supporting an Afghan judiciary, with more resources and incentives for American officers who perform these missions. Just as we succeeded in the Cold War by supporting allies who could sustain their own security, we must realize that the 21st century's frontlines are not only on the field of battle-they are found in the training exercise near Kabul, in the police station in Kandahar, and in the rule of law in Herat.

Moreover, lasting security will only come if we heed Marshall's lesson, and help Afghans grow their economy from the bottom up. That's why I've proposed an additional \$1 billion in non-military assistance each year, with meaningful safeguards to prevent corruption and to make sure investments are made - not just in Kabul - but out in Afghanistan's provinces. As a part of this program, we'll invest in alternative livelihoods to poppy-growing for Afghan farmers, just as we crack down on heroin trafficking. We cannot lose Afghanistan to a future of narco-terrorism. The Afghan people must know that our commitment to their future is enduring, because the security of Afghanistan and the United States is shared.

The greatest threat to that security lies in the tribal regions of Pakistan, where terrorists train and insurgents strike into Afghanistan. We cannot tolerate a terrorist sanctuary, and as President, I won't. We need a stronger and sustained partnership between Afghanistan, Pakistan and NATO to secure the border, to take out terrorist camps, and to crack down on cross-border insurgents. And we must make it clear that if Pakistan cannot or will not act, we will take out high-level terrorist targets like bin Laden if we have them in our sights.

Make no mistake: we can't succeed in Afghanistan or secure our homeland unless we change our Pakistan policy.

Only a strong Pakistani democracy can help us move

저는 최소한 2개 여단 이상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할 것이며 나토 동맹들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제약은 축소할 것입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국내 치안 인력을 양성하고 사법 제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책임자들에 대한 자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 자국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맹들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을 거뒀던 것처럼, 21세기의 전선은 실제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카불 인근의 훈련소나 칸다하르의 경찰서 혹은 헤라트의 사법 제도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항구적인 안보는 우리가 마샬플랜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밑바닥에서부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패를 방지하는 동시에 수도 카불에서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의미 있는 안전 장치를 기초로 매년 비 군사 부문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원조하는 안을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는 헤로인 밀매를 단속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대마 재배 농가에 대체 생계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약-테러 조직에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은 안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은 테러범을 훈련시키고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해 반군을 침투시키는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 근거지를 용인할 수 없으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보호하고 테러범 소굴을 소탕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반군을 몰아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토와 지속적이고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파키스탄이 행동을 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빈 라덴 같은 거물급 테러범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대 파키스탄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공이나 국토 안보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만 우리는 세 번째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즉 테러범과 불량국가로부터 핵

toward my third goal - securing all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from terrorists and rogue states.

In those years after World War II, we worried about the deadly atom falling into the hands of the Kremlin. Now, we worry about 50 tons of highly enriched uranium - some of it poorly secured-at civilian nuclear facilities in over forty countries. Now, we worry about the breakdown of a non-proliferation framework that was designed for the bipolar world of the Cold War. Now, we worry - most of all - about a rogue state or nuclear scientist transferring the world's deadliest weapons to the world's most dangerous people: terrorists who won't think twice about killing themselves and hundreds of thousands in Tel Aviv or Moscow, in London or New York.

Beyond taking these immediate, urgent steps, it's time to send a clear message: America seeks a world with no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we must retain a strong deterrent. But instead of threatening to kick them out of the G-8, we need to work with Russia to take U.S. and Russian ballistic missiles off hair-trigger alert; to dramatically reduce the stockpiles of our nuclear weapons and material; to seek a global ban on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weapons; and to expand the U.S.-Russian ban on intermediate-range missiles so that the agreement is global.

By keeping our commitment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e'll be in a better position to press nations like North Korea and Iran to keep theirs. In particular, it will give us more credibility and leverage in dealing with Iran.

We cannot tolerate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nations that support terror. Preventing Iran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is a vi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No tool of statecraft should be taken off the table. I will use all elements of American power to pressure the Iranian regime, starting with aggressive, principled and direct diplomacy - diplomacy backed with strong sanctions and without preconditions.

무기와 핵 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우리는 핵무기가 크레믈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40개국 이상에 산재한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서-일부는 허술하게-관리되고 있는 50톤 가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 시대의 양극 구도에 맞춰 구축된 핵무기확산방지체제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다른 그 무엇보다도-불량국가나 핵 기술자들이 텔아비브와 모스크바, 런던과 뉴욕에서 자신을 비롯한 수십만 명의 인명을 아무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위험한 집단인 테러범들에게 가공할 위력을 지닌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박한 조치들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를 G8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위협하기보다는 양국의 핵탄두미사일 발사 경계 태세를 해제하고 핵무기 및 원료 비축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며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원료의 생산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이 체결한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을 확대시켜 그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의 의무를 준수할 때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 역시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협상에서 신뢰도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 지원국의 손에 핵무기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에서 핵심을 구성합니다. 가능한 모든 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란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동원할 것이며 적극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직접 외교-강력한 제재 수단을 수반한 전제조건 없는 외교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협상을 동맹과의 완벽한 공조 아래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만약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와 시기에 이란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포함하여-우리가 지닌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란 정권에 대한 환상을

That's why we must pursue these tough negotiations in full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bringing to bear our full influence-including, if it will advance our interests, my meeting with the appropriate Iranian leader at a time and place of my choosing.

We will pursue this diplomacy with no illusions about the Iranian regime. Instead, we will present a clear choice. If you abandon your nuclear program, support for terror, and threats to Israel, there will be meaningful incentives. If you refuse, then we will ratchet up the pressure, with stronger unilateral sanctions; stronger multilateral sanctions in the Security Council, and sustained action outside the UN to isolate the Iranian regime. That's the diplomacy we need. And the Iranians should negotiate now; by waiting, they will only face mounting pressure

The surest way to increase our leverage against Iran in the long-run is to stop bankrolling its ambitions. That will depend on achieving my fourth goal: ending the tyranny of oil in our time.

One of the most dangerous weapons in the world today is the price of oil. We ship nearly \$700 million a day to unstable or hostile nations for their oil. It pays for terrorist bombs going off from Baghdad to Beirut. It funds petrodiplomacy in Caracas and radical madrasas from Karachi to Khartoum. It takes leverage away from America and shifts it to dictators.

This immediate danger is eclipsed only by the long-term threat from climate change, which will lead to devastating weather patterns, terrible storms, drought, and famine. That means people competing for food and water in the next fifty years in the very places that have known horrific violence in the last fifty: Africa,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Most disastrously, that could mean destructive storms on our shores, and the disappearance of our coastline.

This is not just an economic issue or an environmental concern - this is a national security crisis. For the sake of

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분명한 선택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테러 지원 활동,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중단한다면 의미 있는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미국 단독으로, 그리고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유엔 외적으로도 이란 정권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 압력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입니다. 이란은 지금 당장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점차 높아지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줄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 네 번째 목표로서 우리 세대에 원유 독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작금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는 유가입니다. 우리는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 정권이 불안정한 국가나 적대적인 국가에 매일 7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바그다드와 베이루트에서 일어나는 폭탄 테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돈은 카라카스의 원유 외교와 카라치나 하르툼의 급진주의 종교 단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돈은 미국의 영향력을 빼앗아 독재자에게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보다 유일하게 그 심각성이 높은 문제가 바로 장기적인 기후변화의 위협입니다. 기후변화는 기상 주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대한 태풍과 가뭄, 기근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50년간 끔찍한 폭력이 만연했던 아프리카, 중동, 남부 아시아에서 향후 50년간 물과 식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해안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고 해안선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국가 안보 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지불해야 하는 미국의 모든 소비자들을 위해-우리는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온적인 조치나 정치적인 눈속임으로는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진정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향후 20년간 5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석유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키는 녹색 에너지 부문에 투입되는 투자를 앞당길 것이며 우리 조국과 지구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등 모든 유형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청정한 화력 발전과

our security-and for every American family that is paying the price at the pump - we must end this dependence on foreign oil. And as President, that's exactly what I'll do. Small steps and political gimmickry just won't do. I'll invest \$150 billion over the next ten years to put America on the path to true energy security. This fund will fast track investments in a new green energy business sector that will end our addiction to oil and create up to 5 million jobs over the next two decades, and help secure the future of our country and our planet. We'll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very form of alternative energy - solar, wind, and biofuels, as well as technologies that can make coal clean and nuclear power safe. And from the moment I take office, I will let it be known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ready to lead again.

Never again will we sit on the sidelines, or stand in the way of global action to tackle this global challenge. I will reach out to the leaders of the biggest carbon emitting nations and ask them to join a new Global Energy Forum that will lay the found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of climate protocols. We will also build an alliance of oil-importing nations and work together to reduce our demand, and to break the grip of OPEC on the global economy. We'll set a goal of an 80% reduction in global emissions by 2050. And as we develop new forms of clean energy here at home, we will share our technology and our innovations with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That is the tradition of American leadership on behalf of the global good. And that will be my fifth goal - rebuilding our alliances to meet the commo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For all of our power, America is strongest when we act along-side strong partners.

Now is the time for a new er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t's time for America and Europe to renew our common commitment to face down the threats of the 21st century just as we did the challenges of the 20th. It's time to strengthen our partnerships with Japan, South Korea,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보장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이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도전에 맞선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거나 방해물이 되는 일은 결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 정상들을 만나 차세대 기후변화 의정서의 기틀을 마련할 글로벌 에너지 포럼 참여를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유 수입국들로 구성된 국가 연합을 결성하여 수요를 줄이고 OPEC의 글로벌 경제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2050년까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혁신적인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여 그 기술을 세계 각국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세계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리더십의 전통입니다. 더불어 21세기 공동의 도전에 맞서 동맹을 재건한다는 제 다섯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력은 굳건한 파트너들과 함께 행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입니다. 20세기의 도전에 함께 맞섰던 것처럼 21세기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미국과 유럽이 공동의 의지를 새롭게 다질 때입니다.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때입니다. 중국이 보다 개방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사회로 변모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기후변화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관여할 때입니다. 항상 파트너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동맹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청함으로써 나토를 강화할 때입니다. 유엔을 개혁하여 기존의 불완전한 기구에서 탈피하여 의무를 분담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가치관을 신장하는 보다 완전한 협의체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 때입니다. 우리의 동맹인 이스라엘이 진정하고 항구적인 안보를 달성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이 합법적인 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랍-이스라엘 분쟁 해결을 돕는 개입을 확대할 때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노력들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노

Australia and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 India - to create a stable and prosperous Asia. It's time to engage China on common interests like climate change, even as we continue to encourage their shift to a more open and market-based society. It's time to strengthen NATO by asking more of our allies, while always approaching them with the respect owed a partner. It's time to reform the United Nations, so that this imperfect institution can become a more perfect forum to share burdens, strengthen our leverage, and promote our values. It's time to deepen our engagement to help resolve the Arab-Israeli conflict, so that we help our ally Israel achieve true and lasting security, while helping Palestinians achieve their legitimate aspirations for statehood.

And just as we renew longstanding efforts, so must we shape new ones to meet new challenges. That's why I'll create a Shared Security Partnership Program - a new alliance of nations to strengthen cooperative efforts to take down global terrorist networks, while standing up against torture and brutality. That's why we'll work with the African Union to enhance its ability to keep the peace. That's why we'll build a new partnership to roll back the trafficking of drugs, and guns, and gangs in the Americas. That's what we can do if we are ready to engage the world.

We will have to provide meaningful resources to meet critical priorities. I know development assistance is not the most popular program, but as President, I will make the cas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it can be our best investment in increasing the common security of the entire world. That was true with the Marshall Plan, and that must be true today. That's why I'll double our foreign assistance to \$50 billion by 2012, and use it to support a stable future in failing states, and sustainable growth in Africa; to halve global poverty and to roll back disease. To send once more a message to those yearning faces beyond our shores that says, "You matter to us. Your future is our future. And our moment is now." ■

력들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고문과 가혹 행위에 맞서는 동시에 글로벌 테러 네트워크를 근절하는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 동맹체인 공동 안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창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연맹의 평화 유지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마약과 총기, 범죄자의 이동을 방지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동참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우선순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발 원조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으로서 세계 공동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투자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겠습니다. 과거에 마살플랜을 통해 입증됐듯이 오늘날에도 분명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2012년까지 해외 원조를 500억 달러로 증액하여 이 자금을 실패국가의 안정된 미래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전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며 질병을 퇴치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순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시다. ■

The America We Love

Independence, Missouri, June 30, 2008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2008년 6월 30일

On a spring morning in April of 1775, a simple band of colonists - farmers and merchants, blacksmiths and printers, men and boys - left their homes and families in Lexington and Concord to take up arms against the tyranny of an Empire. The odds against them were long and the risks enormous - for even if they survived the battle, any ultimate failure would bring charges of treason, and death by hanging.

And yet they took that chance. They did so not on behalf of a particular tribe or lineage, but on behalf of a larger idea. The idea of liberty. The idea of God-given, inalienable rights. And with the first shot of that fateful day - a shot heard round the world - the American Revolution, and America's experiment with democracy, began.

Those men of Lexington and Concord were among our first patriots. And at the beginning of a week when we celebrate the birth of our nation, I think it is fitting to pause for a moment and reflect on the meaning of patriotism - theirs, and ours. We do so in part because we are in the midst of war - more than one and a half million of our finest young men and women have now fought in Iraq and Afghanistan; over 60,000 have been wounded, and over 4,600 have been laid to rest. The costs of war have been great, and the debate surrounding our mission in Iraq has been fierce. It is natural, in light of such sacrifice by so many, to think more deeply about the commitments that bind us to our nation, and to each other.

We reflect on these questions as well because we are in the midst of a presidential election, perhaps the most consequential in generations; a contest that will determine the course of this nation for years, perhaps decades, to come. Not only is it a debate about big issues

In 1775년 4월의 어느 봄날 아침, 농부와 상인, 대장장이와 인쇄공, 어른과 소년들로 이뤄진 한 무리의 식민지 주민들이 렉싱턴과 콩코드의 집과 가족을 떠나 제국의 압제에 맞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했고 위험은 컸습니다. 설사 전투에서는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거사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반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질 공산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집단이나 혈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이상을 좇아 그 같은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자유의 이상(理想). 신이 부여한 불가양의 권리를 추구하는 이상. 그리고 운명의 날을 결정짓는 한 발의 총성-전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과 함께 독립전쟁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국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미국 최초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건국 기념 주간의 시작에 즈음하여-그들의, 그리고 우리의-애국심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잠시 성찰해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전시라는 점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의 장병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6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 4,600명 이상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으며 이라크전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희생이 요구됐다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를, 그리고 국민과 국민을 묶는 애국심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몇 세대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향후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이 나라의 향방을 좌우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그 같은 고민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나 고용, 에너지, 교육, 안정된 노후 보장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쟁의 계기일 뿐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논쟁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를 지속하는 동시에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점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특권으로 점철되어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수록 글로벌화하는 세계 속에서 승리한 자가 뒤쳐진 자들에 대한 아량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

- health care, jobs, energy, education, and retirement security - but it is also a debate about values. How do we keep ourselves safe and secure while preserving our liberties? How do we restore trust in a government that seems increasingly removed from its people and dominated by special interests? How do we ensure that in an increasingly global economy, the winners maintain allegiance to the less fortunate? And how do we resolve our differences at a time of increasing diversity?

Finally, it is worth considering the meaning of patriotism because the question of who is - or is not - a patriot all too often poisons our political debates, in ways that divide us rather than bringing us together. I have come to know this from my own experience on the campaign trail. Throughout my life, I have always taken my deep and abiding love for this country as a given. It was how I was raised; it is what propelled me into public service; it is why I am running for President. And yet, at certain times over the last sixteen months, I have found, for the first time, my patriotism challenged - at times as a result of my own carelessness, more often as a result of the desire by some to score political points and raise fears about who I am and what I stand for.

So let me say at this at outset of my remarks. I will never question the patriotism of others in this campaign. And I will not stand idly by when I hear others question mine.

The use of patriotism as a political sword or a political shield is as old as the Republic. Still, what is striking about today's patriotism debate is the degree to which it remains rooted in the culture wars of the 1960s - in arguments that go back forty years or more. In the early year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opposition to the Vietnam War, defenders of the status quo often accused anybody who questioned the wisdom of government policies of being unpatriotic.

Meanwhile, some of those in the so-called counter-culture of the Sixties reacted not merely by criticizing

게 하면 갈수록 다양성이 확대되는 시대에 서로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가 애국자인가의-혹은 애국자가 아닌가의-문제는 단합이 아닌 분열을 야기하여 정치적 논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에서 애국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대선 유세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조국에 대한 깊고 오랜 애정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라온 방식이었고 공직에 진출하게 된 원동력이었으며 대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6개월 동안 제 생애 처음으로, 때로는 제 부주의 때문에, 혹은 많은 경우 정치적 득실을 노리고 제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폄하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제 애국심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시작하는 지금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유세 기간 중에 저는 다른 그 누구의 애국심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제 애국심을 문제 삼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심을 전략적인 공격 혹은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해온 역사는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애국심 논쟁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그 기원이 4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1960년대 문화전쟁에 매우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권 운동 초창기와 베트남전 반전 운동 당시 수구 세력들은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문제 삼는 모든 진영을 비 애국적인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소위 1960년대 반문화 진영의 일부 집단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특정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징물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국기를 불태우고 미국을 모든 국제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했으며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귀국길에 오른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과거는 오늘날까지도 국가적인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좌우 이분법적인 단순한 세계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비 애국적인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전통과 제도를 냉소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성숙된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분노와 격동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낡고 진부한 논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부 정

“For me, patriotism is always more than just loyalty to a place on a map or a certain kind of people. Instead, it is also loyalty to America's ideals - ideals for which anyone can sacrifice, or defend, or give their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Civil rights marchers near Montgomery, Alabama, March 1965.
1965년 3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부근에서 시민권 신장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는 시위자들.

"제게 있어 애국심은 지도 위의 어느 지점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상-
누구라도 자신을 희생하고 수호하며 마지막 남은 헌신을 다
할 수 있는 이상에 대한 충성심을 포함합니다."

particular government policies, but by attacking the symbols, and in extreme cases, the very idea, of America itself - by burning flags; by blaming America for all that was wrong with the world; and perhaps most tragically, by failing to honor those veterans coming home from Vietnam, something that remains a national shame to this day.

Most Americans never bought into these simplistic worldviews - these caricatures of left and right. Most Americans understood that dissent does not make one unpatriotic, and that there is nothing smart or sophisticated about a cynical disregard for America's traditions and institutions. And yet the anger and turmoil of that period never entirely drained away. All too often our politics still seems trapped in these old, threadbare arguments - a fact most evident during our recent debates about the war in Iraq, when those who opposed administration policy were tagged by some as unpatriotic, and a general providing his best counsel on how to move forward in Iraq was accused of betrayal.

Given the enormous challenges that lie before us, we can no longer afford these sorts of divisions. None of us expect that arguments about patriotism will, or should, vanish entirely; after all, when we argue about patriotism, we are arguing about who we are as a country, and more importantly, who we should be. But surely we can agree that no party or political philosophy has a monopoly on patriotism. And surely we can arrive at a definition of patriotism that, however rough and imperfect, captures the best of America's common spirit.

What would such a definition look like? For me, as for most Americans, patriotism starts as a gut instinct, a loyalty and love for country rooted in my earliest memories. I'm not just talking about the recitations of the Pledge of Allegiance or the Thanksgiving pageants at school or the fireworks on the Fourth of July, as wonderful as those things may be. Rather, I'm referring to the way the American ideal wove its way throughout the lessons my family taught me as a child.



A poll worker raises the flag before voters arrive at the Town Hall in Woodstock, New Hampshire, on Election Day 2008.

2008년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관리요원이 유권자를 맞이하기 위해 앞서 뉴햄프셔 우드스톡 시청에 성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책에 반대하는 진영은 비 애국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으며 이라크 상황을 진전시킬 방안을 제안한 장성은 배신자로 몰렸던 예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을 감안할 때 더이상 이러한 종류의 분열상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애국심에 관한 논쟁이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혹은 소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국심에 관해 논쟁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국가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의 국가 정체성에 관해 논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철학이 애국심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에는 확실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완전하고 대략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공통적으로 지닌 미국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는 애국심의 정의에 확실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있어서도 애국심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며 유년기의 기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조국에 대한 충성과 애정입니다. 단순히 충성서약 낭독이나 학교 추수감사절 행렬 혹은 독립기념

For me, patriotism is always more than just loyalty to a place on a map or a certain kind of people. Instead, it is also loyalty to America's ideals - ideals for which anyone can sacrifice, or defend, or give their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I believe it is this loyalty that allows a country teeming with different races and ethnicities, religions and customs, to come together as one.

I believe those who attack America's flaws without acknowledging the singular greatness of our ideals, and their proven capacity to inspire a better world, do not truly understand America.

Of course, precisely because America isn't perfect, precisely because our ideals constantly demand more from us, patriotism can never be defined as loyalty to any particular leader or government or policy. As Mark Twain, that greatest of American satirists and proud son of Missouri, once wrote, "Patriotism is supporting your country all the time, and your government when it deserves it." We may hope that our leaders and our government stand up for our ideals, and there are many times in our history when that's occurred. But when our laws, our leaders or our government are out of alignment with our ideals, then the dissent of ordinary Americans may prove to be one of the truest expression of patriotism.

Beyond a loyalty to America's ideals, beyond a willingness to dissent on behalf of those ideals, I also believe that patriotism must, if it is to mean anything, involve the willingness to sacrifice - to give up something we value on behalf of a larger cause. For those who have fought under the flag of this nation no further proof of such sacrifice is necessary. And let me also add that no one should ever devalue that service, especially for the sake of a political campaign, and that goes for supporters on both sides.

We must always express our profound gratitude for the service of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Period. Indeed, one of the good things to emerge from the cur-

일 불꽃놀이 같은 성대한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배우고 익혔던 미국의 이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계 있어 애국심은 지도 위의 어느 지점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상-누구라도 자신을 희생하고 수호하며 마지막 남은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이상에 대한 충성심을 포함합니다. 저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종교와 관습이 혼재된 국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그러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이상에 깃든 고유한 위대함과 보다 나은 세계를 선도하는 검증된 역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미국의 결함만을 공격하는 이들은 미국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애국심은 결코 특정 지도자나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충성심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미주리주가 배출한 위대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애국심이란 자신의 조국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것이며 그럴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와 정부가 우리의 이상에 부합하기를 바라며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바람이 실현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률이나 지도자 혹은 정부가 국민의 이상에서 괴리된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저항이 진정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상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의지를 넘어, 애국심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대의 명분을 목표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대상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 정신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기 아래에서 조국을 위해 싸운 군인들은 더이상 그들의 희생 정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특히 정치적 공세를 목표로, 장병들의 희생을 평가 절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생각은 여야 후보 진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장병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이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 중 하나는 이 전쟁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우리 장병들의 희생만큼은 정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입니다.

rent conflict in Iraq has been the widespread recognition that whether you support this war or oppose it, the sacrifice of our troops is always worthy of honor.

I have seen a new generation of Americans begin to take up the call. I meet them everywhere I go, young people involved in the project of American renewal; not only those who have signed up to fight for our country in distant lands, but those who are fighting for a better America here at home, by teaching in underserved schools, or caring for the sick in understaffed hospitals, or promoting more sustainable energy policies in their local communities.

I believe one of the tasks of the next Administration is to en-sure that this movement towards service grows and sustains itself in the years to come. We should expand AmeriCorps and grow the Peace Corps. We should encourage national service by making it part of the requirement for a new college assistance program, even as we strengthen the benefits for those whose sense of duty has already led them to serve in our military.

As we begin our fourth century as a nation, it is easy to take the extraordinary nature of America for granted. But it is our responsibility as Americans and as parents to instill that his-tory in our children, both at home and at school.

It is up to us to teach them. It is up to us to teach them that even though we have faced great challenges and made our share of mistakes, we have always been able to come together and make this nation stronger, and more prosperous, and more united, and more just. It is up to us to teach them that America has been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and that other nations and other people have looked to us as the last, best hope of Earth. It is up to us to teach them that it is good to give back to one's community; that it is honorable to serve in the military; that it is vital to participate in our democracy and make our voices heard.

저는 새로운 세대가 조국의 부름에 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디를 가던 미국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떠나면 이국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장병들뿐만 아니라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실천하면서 보다 나은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는 차기 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젊은이들이 조국에 봉사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시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메리코(AmeriCorps) 조직을 확장하고 평화봉사단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익 활동 경력을 대학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으로 지정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건국 이래 4세기째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고유한 특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과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고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단합하여 보다 통합되고 부강하며 정의로운 조국을 건설했다는 점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공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다른 국가와 민족들은 우리를 최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왔다는 점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군인이 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민주주의에 동참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에 맞서 조국을 수호하는 임무뿐만 아니라 후대에 보다 나은 미국을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역시 애국이라는-정치인들이 흔히 이끈 하는-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제가 생각하는 애국심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자질은 미국에 대한 추상적인 애정이 아니라 미국 국민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랑과 신뢰일 것입니다. 성조기를 보면 자긍심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쓸쓸한 진혼 나팔 소리에 눈물을 떨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위대함은-전쟁에서의 승리와 거대한 국부와 과학적·문

And it is up to us to teach our children a lesson that those of us in politics too often forget: that patriotism involves not only defending this country against external threat, but also working constantly to make America a better place for future generations.

In the end, it may be this quality that best describes patriotism in my mind - not just a love of America in the abstract, but a very particular love for, and faith in, the American people. That is why our heart swells with pride at the sight of our flag; why we shed a tear as the lonely notes of Taps sound. For we know that the greatness of this country - its victories in war, its enormous wealth, its scientific and cultural achievements - all result from the energy and imagination of the American people; their toil, drive, struggle, restlessness, humor and quiet heroism.

That is the liberty we defend - the liberty of each of us to pursue our own dreams. That is the equality we seek - not an equality of results, but the chance of every single one of us to make it if we try. That is the community we strive to build - one in which we trust in this sometimes messy democracy of ours, one in which we continue to insist that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when we put our mind to it, one in which we see ourselves as part of a larger story, our own fates wrapped up in the fates of those who share allegiance to America's happy and singular creed. ■

화적 성취는-모두가 국민들의 에너지와 상상력, 노력, 의지, 투쟁, 근면, 유머, 묵묵한 영웅심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수호하는 자유-우리 모두가 각자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도전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공동체-때로는 엉망이 되기도 하는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목표를 세운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굳게 확신하며 미국의 고유하고 행복한 국가 신조에 함께 충성을 서약한 다른 국민들과 공동 운명체로서 보다 큰 틀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공동체입니다. ■

A More Perfect Union

Philadelphia, Pennsylvania, March 18, 2008

보다 완전한 통합

2008년 3월 18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We the people,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Two hundred and twenty one years ago, in a hall that still stands across the street, a group of men gathered and, with these simple words, launched America's improbable experiment in democracy. Farmers and scholars, statesmen and patriots who had traveled across an ocean to escape tyranny and persecution finally made real thei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t a Philadelphia convention that lasted through the spring of 1787.

The document they produced was eventually signed but ultimately unfinished. It was stained by this nation's original sin of slavery, a question that divided the colonies and brought the convention to a stalemate until the founders chose to allow the slave trade to continue for at least twenty more years, and to leave any final resolution to future generations.

Of course, the answer to the slavery question was already embedded within our Constitution - a Constitution that had at its very core the ideal of equal citizenship under the law; a Constitution that promised its people liberty, and justice, and a union that could be and should be perfected over time.

And yet words on a parchment would not be enough to deliver slaves from bondage, or provide men and women of every color and creed their full rights and obligations as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at would be needed were Americans in successive generations who were willing to do their part-through protests and struggle, on the streets and in the courts, through a civil war and civil disobedience and always at great risk - to narrow that gap between the promise of our ideals and the reality of their time.

"우 리 국민은 보다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221년 전, 오늘날까지도 길 건너편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독립기념관에 모인 한 무리의 군중이 이 몇 마디 단어들을 시작으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미국 민주주의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압제와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농부와 학자, 정치인과 애국자들은 1787년 봄 마침내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헌실로 바꿨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헌법은 결국에 가서는 서명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미완에 그쳤습니다. 건국 시조들이 노예 무역을 최소한 20년 이상 허용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후대에 미루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각 주를 분열시키고 제헌회의를 교착 상태에 빠뜨린 국가적 원죄인 노예제는 헌법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노예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헌법에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근본 원칙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세월을 두고 차차 완성해갈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할 시민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통합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피지에 적힌 글자들만으로는 노예를 구속에서 해방하거나 인종과 신념을 불문하고 모든 남녀에게 미국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와 법정에서 저항과 투쟁을 벌이고, 남북 전쟁과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후대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유세 초기에 우리가 착수한 과업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앞을 거쳐간 선대의 장정(長程)을, 보다 정의롭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자애롭고 보다 번영하는 미국을 향한 장정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미국 국민의 품위와 관용에 대한 저의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신념은 저의 개인적인 출신

This was one of the tasks we set forth at the beginning of this campaign - to continue the long march of those who came before us, a march for a more just, more equal, more free, more caring and more prosperous America.

This belief comes from my unyielding faith in the decency and generosity of the American people. But it also comes from my own American story.

I am the son of a black man from Kenya and a white woman from Kansas. I was raised with the help of a white grandfather who survived a Depression to serve in Patton's Army during World War II and a white grandmother who worked on a bomber assembly line at Fort Leavenworth while he was overseas. I've gone to some of the best schools in America and lived in one of the world's poorest nations. I am married to a black American who carries within her the blood of slaves and slave owners - an inheritance we pass on to our two precious daughters. I have brothers, sisters, nieces, nephews, uncles and cousins, of every race and every hue, scattered across three continents, and for as long as I live, I will never forget that in no other country on Earth is my story even possible.

It's a story that hasn't made me the most conventional candidate. But it is a story that has seared into my genetic makeup the idea that this nation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 - that out of many, we are truly one.

Throughout the first year of this campaign, against all predictions to the contrary, we saw how hungry the American people were for this message of unity. Despite the temptation to view my candidacy through a purely racial lens we built a powerful coalition of African Americans and white Americans.

Race is an issue that I believe this nation cannot afford to ignore right now. ... The issues that have surfaced over the last few weeks reflect the complexities of race in this country that we've never really worked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케냐 출신 흑인 아버지와 캔자스주 출신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공황을 견뎌내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패튼 군단에서 복무한 백인 할아버지와 남편이 해외에 파병된 동안 리븐워스 기지 내 폭격기 조립공장에서 일한 백인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미국 최고 명문 학교들을 다녔으며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 머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조상을 가진 흑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이 혈통은 제 소중한 두 딸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각양각색의 인종과 피부색을 지닌 형제, 자매, 조카, 삼촌, 사촌들이 세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제가 살아 있는 한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저와 같은 경우가 다시 나오는 일은 없으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저는 여느 대통령 후보들과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분들의 합보다 크며 다양성 속에서 진정한 일치를 이룬다는 진리가 제 유전자 속에 각인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유세를 진행하는 동안 부정적인 예상들과는 달리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통합의 메시지를 얼마나 갈구해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전히 인종적인 시각에서 저를 바라보려는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흑백간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종 문제가 국가적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주간 표출된 문제들은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우리가 완성해야 할 통합의 한 축으로서의-인종 문제의 난맥상을 반영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도망친다면, 각자의 자리로 그저 후퇴한다면 의료 서비스나 교육, 전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 같은 도전들은 결코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과거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았다. 사실, 아직 지나간 과거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흑인사회에 잔존하는 수많은 차별이 노예제나 짐 크로우(로 알려진 인종분리 법률) 같은 과거의 잔인한 유산으로 고통 받았던 초창기 세대로부터 이어진 불평등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through-a part of our union that we have yet to perfect. And if we walk away now, if we simply retreat into our respective corners, we will never be able to come together and solve challenges like health care, or education, or the need to find good jobs for every American.

Understanding this reality requires a reminder of how we arrived at this point. As William Faulkner once wrote, "The past isn't dead and buried. In fact, it isn't even past." We do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so many of the disparities that exist in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today can be directly traced to inequalities passed on from an earlier generation that suffered under the brutal legacy of slavery and [segregation laws known as] Jim Crow.

Segregated schools were, and are, inferior schools; we still haven't fixed them, fifty years after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the inferior education they provided, then and now, helps explain the pervasive achievement gap between today's black and white students.

Legalized discrimination-where blacks were prevented, often through violence, from owning property, or loans were not granted to African-American business owners, or black homeowners could not access FHA mortgages, or blacks were excluded from unions, or the police force, or fire departments -meant that black families could not amass any meaningful wealth to bequeath to future generations. That history helps explain the wealth and income gap between black and white, and the concentrated pockets of poverty that persists in so many of today's urban and rural communities.

A lack of economic opportunity among black men, and the shame and frustration that came from not being able to provide for one's family, contributed to the erosion of black families - a problem that welfare policies for many years may have worsened. And the lack of basic services in so many urban black neighborhoods - parks for kids to play in, police walking the beat, regular

인종분리 학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환경이 열악하며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이 내려진 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황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열악한 교육의 질은 오늘날 흑인과 백인 학생간 학력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흑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흔히 폭력을 동원하여 막거나 흑인 기업인에게 대출을 허용하지 않거나 흑인 주택 소유자의 FHA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불허하거나 노조원이나 경찰, 소방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합법적인 인종차별로 인해 흑인 가구는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오늘날 흑백 가구간 자산·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많은 도시와 농촌 사회에서 절대 빈곤층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설명해줍니다.

흑인 남성의 경제 활동 기회가 부족하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인하여 흑인 가정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지난 정권의 복지 정책 때문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나 방법 순찰, 쓰레기 수거, 건축물 규제 등 도심 흑인 거주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공공 지원이 부족하여 폭력과 황폐화 그리고 방치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백인사회에도 그와 유사한 분노가 존재합니다. 대다수 백인 중산층 노동자 집단은 자신들이 인종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물려 받은 것이 없으며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근면하게 일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일자리가 해외로 사라지거나 일생 동안 불입한 연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임금은 정체되고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시대에 기회라고 해박야 내 회생을 담보로 남의 꿈이 실현되는 한갓 제로섬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버스에 태워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시킬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흑인이 좋은 직장이나 대학에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도심 주택가 범죄에 대한 자신들의 두려움이 편견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을 때마다 차츰 분노가 쌓여 갑니다.

많은 경우 흑인들의 분노가 비생산적인 결과만을 불러왔듯

“

"Working together we can move beyond some of our old racial wounds, and that in fact we have no choice if we are to continue on the path of a more perfect union."



A diverse audience listens to candidate Obama speak in Wallingford, Pennsylvania.
각양각색의 청중이 펜실베이니아주 월링포드에서 오바마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뿌리 깊은 인종간 상처를 넘어
전진할 수 있으며 만약 우리가
보다 완전한 통합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자 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garbage pick-up and building code enforcement - all helped create a cycle of violence, blight and neglect that continue to haunt us.

In fact, a similar anger exists within segments of the white community. Most working- and middle-class white Americans don't feel that they have been particularly privileged by their race. Their experience is the immigrant experience - as far as they're concerned, no one's handed them anything, they've built it from scratch. They've worked hard all their lives, many times only to see their jobs shipped overseas or their pension dumped after a lifetime of labor. They are anxious about their futures, and feel their dreams slipping away; in an era of stagnant wages and global competition, opportunity comes to be seen as a zero sum game, in which your dreams come at my expense. So when they are told to bus their children to a school across town; when they hear that an African American is getting an advantage in landing a good job or a spot in a good college because of an injustice that they themselves never committed; when they're told that their fears about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are somehow prejudiced, resentment builds over time.

Just as black anger often proved counterproductive, so have these white resentments distracted attention from the real culprits of the middle class squeeze - a corporate culture rife with inside dealing, questionable accounting practices, and short-term greed; a Washington dominated by lobbyists and special interests; economic policies that favor the few over the many. And yet, to wish away the resentments of white Americans, to label them as misguided or even racist, without recognizing they are grounded in legitimate concerns - this too widens the racial divide, and blocks the path to understanding.

This is where we are right now. It's a racial stalemate we've been stuck in for years. Contrary to the claims of some of my critics, black and white, I have never been so naïve as to believe that we can get beyond our racial

이 백인들의 분노 역시 내부 거래로 얼룩진 기업 문화와 불투명한 회계 관행, 근시안적인 탐욕, 로비스트와 특권에 휘둘리는 정치권,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 등 중산층 위기의 진짜 원인들로부터 본질을 흐리는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인사회의 분노가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편견 혹은 인종주의로 낙인 찍을 경우 이 또한 인종간 분열을 초래하고 상호 이해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인종 문제입니다. 흑백을 불문하고 저를 비판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반대로, 저는 단 한번의 선거로 혹은 한 명의 후보로-그것도 제 경우처럼 불완전한 후보로-인종간 분열이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뿌리 깊은 인종간 상처를 넘어 전진할 수 있으며 만약 우리가 보다 완전한 통합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자 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신에 대한 믿음과 국민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신념을-피력해왔습니다.

흑인사회에 있어서 그 길은 과거의 제물로 전락하지 않고 과거의 짐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삶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정의를 부단히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의료 서비스나 교육, 고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바람들을 고용 차별을 철폐하고자 안간힘 쓰는 백인 여성이나 직장을 잃은 백인 남성이나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이민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희망과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아버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도전과 차별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절망이나 냉소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가르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인사회에 있어서 보다 완전한 통합에 이르는 길은 흑인사회의 병폐가 단지 흑인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며 인종차별의 유산은-그리고 과거와 비교하여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 실태들은-실제로 지금도 남아있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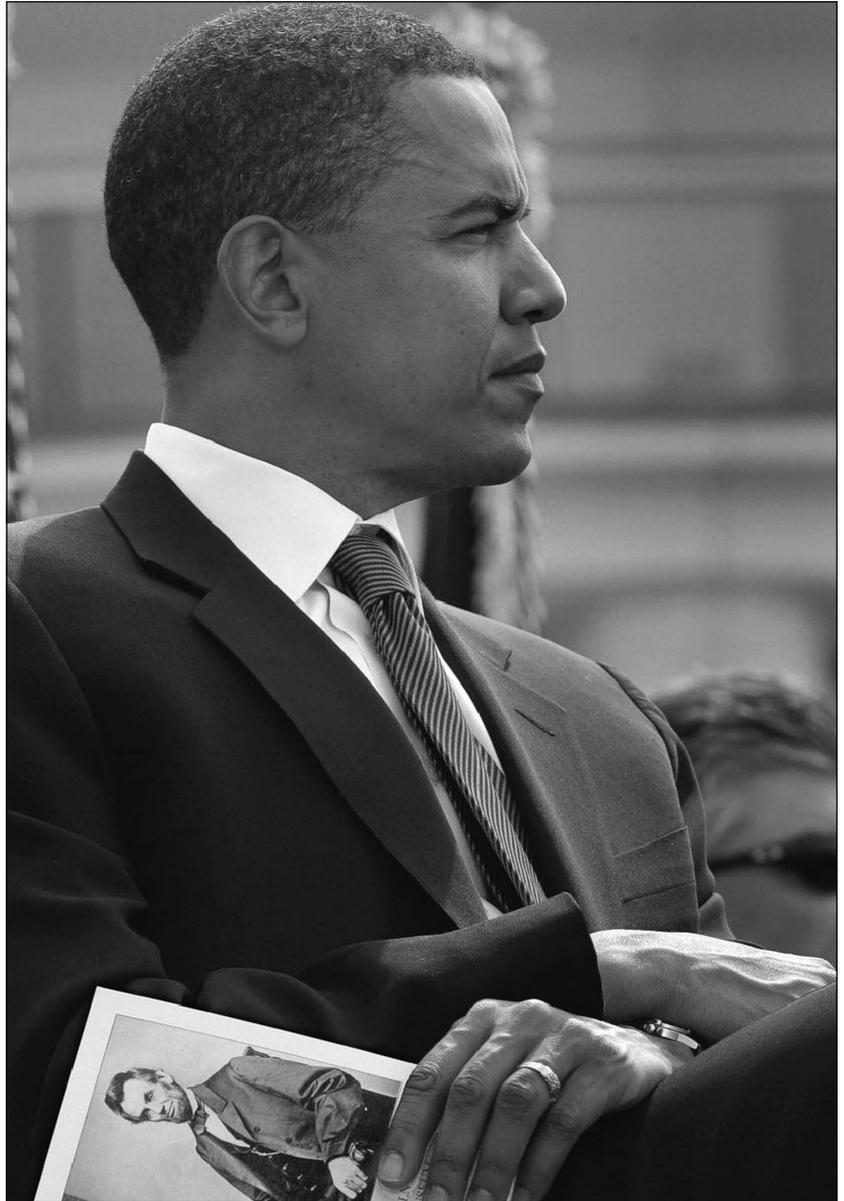
divisions in a single election cycle, or with a single candidacy - particularly a candidacy as imperfect as my own.

But I have asserted a firm conviction - a conviction rooted in my faith in God and my faith in the American people- that working together we can move beyond some of our old racial wounds, and that in fact we have no choice if we are to continue on the path of a more perfect union.

For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that path means embracing the burdens of our past without becoming victims of our past.

It means continuing to insist on a full measure of justice in every aspect of American life. But it also means binding our particular grievances - for better health care, and better schools, and better jobs - to the larger aspirations of all Americans - the white woman struggling to break the glass ceiling, the white man whose been laid off, the immigrant trying to feed his family. And it means taking full responsibility for our own lives - by demanding more from our fathers, and spending more time with our children, and reading to them, and teaching them that while they may face challenges and discrimination in their own lives, they must never succumb to despair or cynicism; they must always believe that they can write their own destiny.

In the white community, the path to a more perfect union means acknowledging that what ails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does not just exist in the minds of black people; that the legacy of discrimination - and current incidents of discrimination, while less overt than in the past - are real and must be addressed. Not just with



A longtime admirer of Abraham Lincoln, Barack Obama attends the opening ceremonies of the Abraham Lincoln Presidential Museum in Springfield, Illinois.

항상 링컨을 존경해온 버락 오바마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링컨 대통령 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한편 시민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공정한 형사 절차를 보장하며 과거 세대는 누리지 못했던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을 희생해야만 다른 사람의 꿈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흑인과 황인과 백인 아동들을 위한 의료·복지·교육 부문 투자가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번영에 일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과 논쟁 그리

words, but with deeds - by investing in our schools and our communities; by enforcing our civil rights laws and ensuring fairness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by providing this generation with ladders of opportunity that were unavailable for previous generations. It requires all Americans to realize that your dreams do not have to come at the expense of my dreams; that investing in the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of black and brown and white children will ultimately help all of America prosper.

We have a choice in this country. We can accept a politics that breeds division, and conflict, and cynicism. ... But if we do, I can tell you that in the next election, we'll be talking about some other distraction. And then another one. And then an-other one. And nothing will change.

That is one option. Or, at this moment, in this election, we can come together and say, "Not this time." This time we want to talk about the crumbling schools that are stealing the future of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 and Asian children and Hispanic children and Native American children. This time we want to reject the cynicism that tells us that these kids can't learn; that those kids who don't look like us are somebody else's problem. The children of America are not those kids, they are our kids, and we will not let them fall behind in a 21st century economy. Not this time.

This time we want to talk about how the lines in the Emergency Room are filled with whites and blacks and Hispanics who do not have health care; who don't have the power on their own to overcome the special interests in Washington, but who can take them on if we do it together.

This time we want to talk about the shuttered mills that once provided a decent life for men and women of every race, and the homes for sale that once belonged to Americans from every religion, every region, every walk of life.

고 냉소를 조장하는 정치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또 다른 혼란이 연이어 등장할 것입니다. 결국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반면에, 이번만큼은, 이번 대선만큼은 우리가 뜻을 모아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흑인 어린이와 백인 어린이와 아시아계 어린이와 히스패닉 어린이와 아메리카 원주민 어린이의 미래를 앞아가는 교육제도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만큼은 이 아이들은 배울 능력이 없거나 우리와 다르게 생긴 저 아이들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냉소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린이는 '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는 그들이 21세기 경제에서 낙오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각자가 홀로 워싱턴 특권 집단에 맞설 힘은 없지만 힘을 합친다면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백인과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주민들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만큼은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했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종교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어느 가정이나 소유할 수 있었던 주택을 시장에 내놔야 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만큼은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여러분과 다르게 생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가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한 나머지 해외로 일자리를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만큼은 같은 국기 아래 함께 복무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피 흘리는 다양한 피부색과 신념을 지닌 장병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코 비준되지 않았어야 하고 결코 시작되지 않았어야 할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불러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며, 장병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애국심을 입증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조국을 위해 바라는 일이라는 확신이 없었던다면 저는 결코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한 통합

This time we want to talk about the fact that the real problem is not that someone who doesn't look like you might take your job; it's that the corporation you work for will ship it overseas for nothing more than a profit.

This time we want to talk about the men and women of every color and creed who serve together, and fight together, and bleed together under the same proud flag. We want to talk about how to bring them home from a war that never should've been authorized and never should've been waged, and we want to talk about how we'll show our patriotism by caring for them, and their families, and giving them the benefits they have earned.

I would not be running for President if I didn't believe with all my heart that this is what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want for this country. This union may never be perfect, but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s shown that it can always be perfected. And today, whenever I find myself feeling doubtful or cynical about this possibility, what gives me the most hope is the next generation - the young people whose attitudes and beliefs and openness to change have already made history in this election. ■

은 결코 이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대와 세대를 거치는 동안 완전한 통합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제가 이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냉소적인 생각을 가질 때마다 제게 가장 큰 희망이 되어준 것은 다음 세대-그들의 태도와 신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미 역사를 창조한 젊은 세대였습니다. ■

Our Past, Future & Vision for America

Announcement for President (Springfield, Illinois, February 10, 2007)

우리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미국의 비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2007년 2월 10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It was here, in Springfield, where North, South, East and West come together that I was reminded of the essential decency of the American people-where I came to believe that through this decency, we can build a more hopeful America.

And that is why, in the shadow of the Old State Capitol, where Lincoln once called on a divided house to stand together, where common hopes and common dreams still, I stand before you today to announce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recognize there is a certain presumptuousness - a certain audacity - to this announcement. I know I haven't spent a lot of time learning the ways of Washington. But I've been there long enough to know that the ways of Washington must change.

The genius of our founders is that they designed a system of government that can be changed. And we should take heart, because we've changed this country before. In the face of tyranny, a band of patriots brought an Empire to its knees. In the face of secession, we unified a nation and set the captives free. In the face of Depression, we put people back to work and lifted millions out of poverty. We welcomed immigrants to our shores, we opened railroads to the west, we landed a man on the moon, and we heard a King's call to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

Each and every time, a new generation has risen up and done what's needed to be done. Today we are called once more - and it is time for our generation to answer that call.

제가 미국 국민의 진정한 품격을 다시금 깨달은 곳은 동서남북이 한데 만나는 이곳 스프링필드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러한 품격을 바탕으로 보다 희망찬 미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분열된 집안은 일어설 수 없다고 연설했던, 공동의 희망과 공동의 이상이 살아 있는 이곳 구 의사당 그늘 아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출마 선언이 주제 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대담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워싱턴 정가의 방식들을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방식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변화가 가능한 정부 체제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우리 건국 시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도 이미 이 나라를 변화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정에 맞서 한 무리의 애국자들이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분열에 맞서 조국을 통일시키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대공황에 맞서 일자리를 되찾고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했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였고 서부 횡단 철도를 개통했으며 달에 인류를 보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로움이 힘찬 물살을 이루게 만들자는 킹 목사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여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부름에 답해야 할 순간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진정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석유 의존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

For that is our unyielding faith - that in the face of impossible odds, people who love their country can change it.

All of us know what those challenges are today - a war with no end, a dependence on oil that threatens our future, schools where too many children aren't learning, and families struggling paycheck to paycheck despite working as hard as they can. We know the challenges. We've heard them. We've talked about them for years.

What's stopped us from meeting these challenges is not the absence of sound policies and sensible plans. What's stopped us is the failure of leadership, the smallness of our politics - the ease with which we're distracted by the petty and trivial, our chronic avoidance of tough decisions, our preference for scoring cheap political points instead of rolling up our sleeves and building a working consensus to tackle big problems.

It's time to turn the page. We've made some progress already. But Washington has a long way to go. And it won't be easy. That's why we'll have to set priorities. We'll have to make hard choices. And although government will play a crucial role in bringing about the changes we need, more money and programs alone will not get us where we need to go. Each of us, in our own lives, will have to accept responsibility - for instilling an ethic of achievement in our children, for adapting to a more competitive economy, for strengthening our communities, and sharing some measure of sacrifice.

So let us begin. Let us begin this hard work together. Let us transform this nation.

Let us be the generation that reshapes our economy to compete in the digital age. Let's set high standards for our schools and give them the resources they need to succeed. Let's recruit a new army of teachers, and give them better pay and more support in exchange for more accountability. Let's make college more affordable, and let's invest in scientific research, and let's lay down

제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빈곤 가구 같은 당면 과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제들에 관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건전한 정책이나 합리적인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 우리 정치의 편협함 때문입니다. 사소한 이해관계로 인해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과단성 있는 결정을 회피하고 있으며 소매를 걷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순간입니다. 이미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는 아직 갈 길이 멍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비록 정부가 변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예산과 사업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자녀에게 성취 윤리를 가르치고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 적응하며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희생을 분담하는 책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과업을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조국을 변모시킵시다.

디지털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춘 경제를 재건하는 세대가 됩니다. 각급 학교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교사를 충원하고 그들에게 높은 책임성을 요구하는 대신에 급여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과학 연구 부문에 투자하며 미국 전역을 관통하여 도심과 지방을 연결하는 광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근로자들이 경제 변화에 따른 번영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세대가 됩니다. 사측이 약속하고 근로자들이 힘들게 노력하여 성취한 결과물을 보호합니다. 근면하게 일하는 국민이 은퇴 이후에 대비하여 저축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노조와 노동 운동가들이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에서 빈곤을 종식시키는 세대가 됩니다.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고 가게를 유지할

broadband lines through the heart of inner cities and rural towns all across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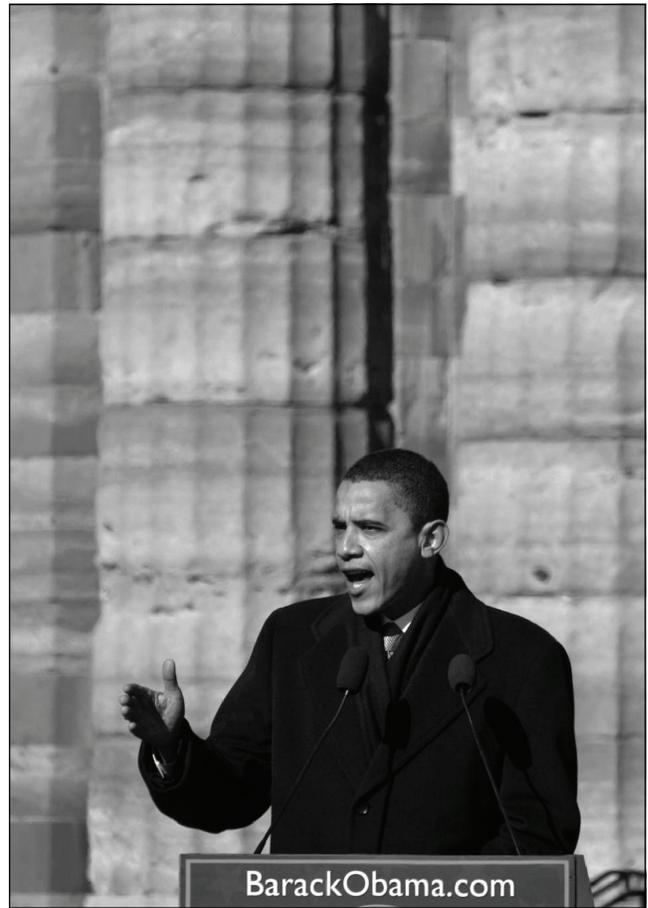
And as our economy changes, let's be the generation that ensures our nation's workers are sharing in our prosperity. Let's protect the hard-earned benefits their companies have promised. Let's make it possible for hard-working Americans to save for retirement. And let's allow our unions and their organizers to lift up this country's middle-class again.

Let's be the generation that ends poverty in America. Every single person willing to work should be able to get job training that leads to a job, and earn a living wage that can pay the bills, and afford child care so their kids have a safe place to go when they work. Let's do this.

Let's be the generation that finally tackles our health care crisis. We can control costs by focusing on prevention, by providing better treatment to the chronically ill, and using technology to cut the bureaucracy. Let's be the generation that says right here, right now, that we will have universal health care in America by the end of the next president's first term.

Let's be the generation that finally frees America from the tyranny of oil. We can harness homegrown, alternative fuels like ethanol and spur the production of more fuel-efficient cars. We can set up a system for capping greenhouse gases. We can turn this crisis of global warming into a moment of opportunity for innovation, and job creation, and an incentive for businesses that will serve as a model for the world. Let's be the generation that makes future generations proud of what we did here.

Most of all, let's be the generation that never forgets what happened on that September day [September 11, 2001] and confront the terrorists with everything we've got. We can work together to track terrorists down with a stronger military, we can tighten the net around their



Barack Obama announces his candidacy for President at the Old State Capitol in Springfield, Illinois, February 10, 2007

2007년 2월 10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구 의사당에서 버락 오바마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으며 직장에 있는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룹시다.

의료 서비스 부문의 위기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세대가 됩시다. 예방에 주력하고 만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며 관료주의를 척결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전까지 보통 의료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 세대가 됩시다.

석유 독재로부터 미국을 최종적으로 해방시키는 세대가 됩시다. 우리는 에탄올 같은 토착 대체 연료를 개발하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 위기를 국제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

“

"That is our unyielding faith - that in the face of impossible odds, people who love their country can change it."



Barack Obama speaks before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July 27, 2004.
2004년 7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가 연설을 하고 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진정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

finances, and we can improve our intelligence capabilities.

But let us also understand that ultimate victory against our enemies will come only by rebuilding our alliances and exporting those ideals that bring hope and opportunity to millions around the globe.

But all of this cannot come to pass until we bring an end to this war in Iraq. Most of you know I opposed this war from the start. I thought it was a tragic mistake. Today we grieve for the families who have lost loved ones, the hearts that have been broken, and the young lives that could have been. America, it's time to start bringing our troops home. Letting the Iraqis know that we will not be there forever is our last, best hope to pressure the Sunni and Shia to come to the table and find peace.

Finally, there is one other thing that is not too late to get right about this war - and that is the homecoming of the men and women-our veterans-who have sacrificed the most. Let us honor their valor by providing the care they need and rebuilding the military they love. Let us be the generation that begins this work.

That is why this campaign can't only be about me. It must be about us - it must be about what we can do together. This campaign must be the occasion, the vehicle, of your hopes, and your dreams. It will take your time, your energy, and your advice - to push us forward when we're doing right, and to let us know when we're not. This campaign has to be about reclaiming the meaning of citizen-ship, restoring our sense of common purpose, and realizing that few obstacles can withstand the power of millions of voices calling for change.

By ourselves, this change will not happen. Divided, we are bound to fail.

But the life of a tall, gangly, self-made Springfield lawyer [Abraham Lincoln] tells us that a different future

을 창출하며 혁신을 이룩하는 기회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후대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업적을 남기는 세대가 됩시다.

9월의 사건(9·11테러)을 결코 잊지 않으며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테러범에 맞서는 세대가 됩시다.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테러범을 색출할 수 있으며, 우리는 테러 자금줄을 조일 수 있으며, 우리는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동맹을 재건하고 지구상 수백만 주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전달하는 이상(理想)들을 확산시킬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 역시 이해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목표는 이라크전을 종식시키기 전까지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애초부터 이 전쟁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끔찍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 그리고 피지 못하고 사라진 젊은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는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장병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언제까지고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라크 국민들이 깨닫도록 만드는 것만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협상에 임하고 평화를 모색하도록 압박하는 최선이자 최후의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잘못이 하나 더 있습니다-많은 희생을 바친 장병들을 고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군을 재건하여 그들의 용맹함을 기립시다. 이 작업에 착수하는 세대가 됩시다.

이번 선거가 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에 관한 문제가 되어야 하며-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이상을 구현하는 수단이자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잘할 때 격려해주고 못할 때 지적해주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력과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시민 의식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의식을 복원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수백만의 목소리를 견뎌낼 장애물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만으로는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분열된 상태로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is possible.

He tells us that there is power in words.

He tells us that there is power in conviction.

That beneath all the differences of race and region, faith and station, we are one people.

He tells us that there is power in hope.

As Lincoln organized the forces arrayed against slavery, he was heard to say: "Of strange, discordant, and even hostile elements, we gathered from the four winds, and formed and fought to battle through."

That is our purpose here today.

That's why I'm in this race.

Not just to hold an office, but to gather with you to transform a nation.

I want to win that next battle - for justice and opportunity.

I want to win that next battle - for better schools, and better jobs, and health care for all.

I want us to take up the unfinished business of perfecting our union, and building a better America.

And if you will join me in this improbable quest, if you feel destiny calling, and see as I see, a future of endless possibility stretching before us; if you sense, as I sense, that the time is now to shake off our slumber, and slough off our fear, and make good on the debt we owe past and future generations, then I'm ready to take up the cause, and march with you, and work with you. Together, starting today, let us finish the work that needs to be done, and usher in a new birth of freedom on this Earth ■

하지만 이곳 스프링필드 출신으로 독학으로 법조인이 된 큰 키에 깡마른 체격의 변호사 링컨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확신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종과 지역, 신념과 지위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희망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노예제에 맞서 세력을 규합하면서 링컨은 말했습니다. "낯설고 부조화하며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사방에서 모였으며 함께 뭉쳐 전투에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거에 뛰어들 이유입니다.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조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정의와 기회를 위해 다음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다 나은 학교와 일자리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위해 다음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못다한 국가 통합과 보다 나은 미국의 건설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처럼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여정에 동참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운명의 부름을 느끼고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제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두려움을 떨치고 선대와 후대에 진 빛을 갚을 때가 왔다고 제가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사명을 받들어 여러분과 전진하고 여러분과 협력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함께,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지구상에서 자유의 새로운 태동을 준비합시다. ■

The Audacity of Hope

Keynote Address at the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Boston, Massachusetts, July 27, 2004)

담대한 희망

2004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 (2004년 7월 27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On behalf of the great state of Illinois, crossroads of a nation, land of Lincoln, let me express my deep gratitude for the privilege of addressing this convention. Tonight is a particular honor for me because, let's face it, my presence on this stage is pretty unlikely. My father was a foreign student, born and raised in a small village in Kenya. He grew up herding goats, went to school in a tin-roof shack. His father, my grandfather, was a cook, a domestic servant.

But my grandfather had larger dreams for his son. Through hard work and perseverance my father got a scholarship to study in a magical place: America, which stood as a beacon of freedom and opportunity to so many who had come before. While studying here, my father met my mother. She was born in a tow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n Kansas. Her father worked on oil rigs and farms through most of the Depression. The day after Pearl Harbor he signed up for duty, joined Patton's army and marched across Europe. Back home, my grandmother raised their baby and went to work on a bomber assembly line. After the war, they studied on the GI Bill, bought a house through FHA, and moved west in search of opportunity.

And they, too, had big dreams for their daughter, a common dream, born of two continents. My parents shared not only an improbable love; they shared an abiding faith in the possibilities of this nation. They would give me an African name, Barack, or "blessed," believing that in a tolerant America your name is no barrier to success. They imagined me going to the best schools in the land, even though they weren't rich, because in a generous America you don't have to be rich to achieve your potential. They are both passed away now. Yet, I know that, on this night, they look down on me with pride.

전 국토를 하나로 잇는 링컨의 땅, 위대한 일리노이주를 대표하여 오늘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영광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케냐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해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염소를 치며 성장했고 함석 지붕을 올린 오두막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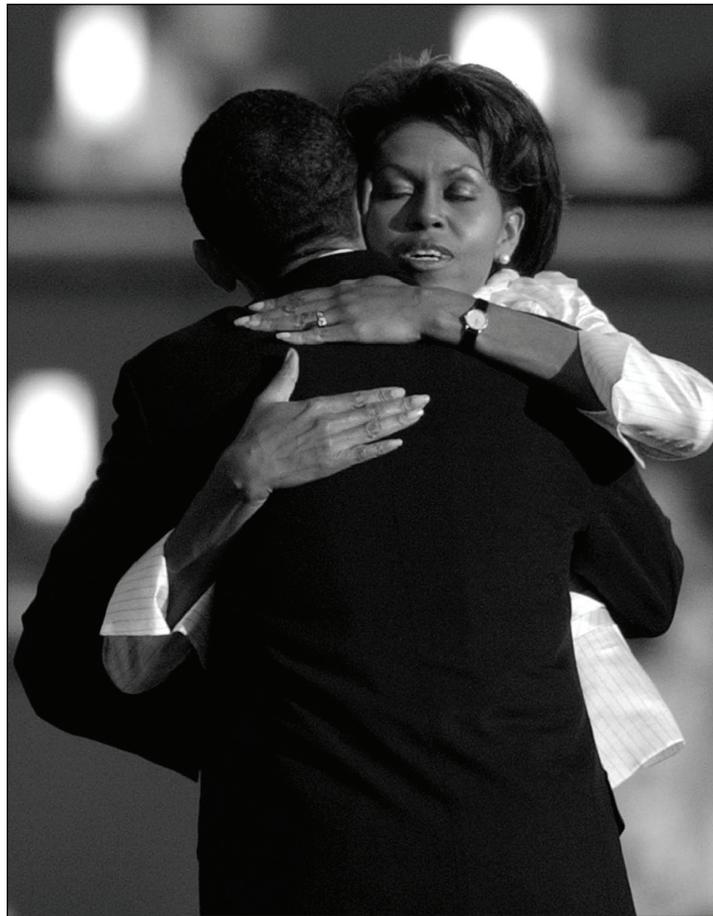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인내와 노력으로 마법의 땅에서-그때까지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자유와 기회의 빛을 제공한 미국에서-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탔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캔자스주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대공황 시절의 대부분을 원유 광구와 농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다음날, 외할아버지는 군에 입대하여 패튼 군단의 일원으로 유럽에서 싸웠습니다. 혼자 남은 외할머니는 아기를 키우며 폭격기 조립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두 분은 재향군인 사회적응지원법의 혜택을 받아 대학을 다니고 FHA 제도를 통해 집을 마련했으며 기회를 찾아 서부로 이주했습니다.

두 분 역시 딸을 향한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두 대륙에서 잉태된 같은 꿈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뿐 아니라 미국의 가능성에 대한 오랜 믿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분은 관용이 뿌리내린 미국에서 이름은 성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 아래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아프리카식 이름 버락을 선택했습니다. 두 분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관대함이 뿌리내린 미국에서 부가 개인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저를 명문 학교에 보냈습니다. 두 분 모두 이미 세상을 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두 분이 하늘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지닌 다양한 배경에 감사하며 제 부모님의 꿈들이 제 소중한 두 딸에게 이어졌다는 생각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섰

“

"That is the true genius
of America, a faith in
the simple dreams of its
people, the insistence on
small miracles."



Michelle Obama hugs her husband after his speech to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July 27, 2004.

2004년 7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직후 미셸 오바마가 남편을 포옹하고 있다.

"국민의
소박한 꿈들에 대한 믿음,
작은 기적들을 향한 추구,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

I stand here today, grateful for the diversity of my heritage, aware that my parents' dreams live on in my precious daughters. I stand here knowing that my story is part of the larger American story, that I owe a debt to all of those who came before me, and that, in no other country on earth, is my story even possible. Tonight, we gather to affirm the greatness of our nation, not because of the height of our skyscrapers, or the power of our military, or the size of our economy. Our pride is based on a very simple premise, summed up in a declaration made over two hundred years ago,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is the true genius of America, a faith in the simple dreams of its people, the insistence on small miracles. That we can tuck in our children at night and know they are fed and clothed and safe from harm. That we can say what we think, write what we think, without hearing a sudden knock on the door. That we can have an idea and start our own business without paying a bribe or hiring somebody's son. That we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without fear of retribution, and that our votes will be counted - or at least, most of the time.

This year, in this election, we are called to reaffirm our values and commitments, to hold them against a hard reality and see how we are measuring up, to the legacy of our forbearers, and the promise of future generations. And fellow Americans : Democrats, Republicans, Independents - I say to you tonight: we have more work to do. More to do for the workers I met in Galesburg, Illinois, who are losing their union jobs at the Maytag plant that's moving to Mexico, and now are having to compete with their own children for jobs that pay seven bucks an hour.

More to do for the father I met who was losing his job and choking back tears, wondering how he would pay \$4,500 a month for the drugs his son needs without

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이야기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 부분이며, 제 앞을 거처간 모든 이들에게 빛을 지고 있으며, 지구 상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제 삶의 이야기는 결코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의 위대함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때문도, 군사력 때문도, 경제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긍심은 이미 200년 전에 작성된 선언문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이 자명함을 선포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창조주로부터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국민의 소박한 꿈들에 대한 믿음, 작은 기적들을 향한 추구,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매일 밤 아이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챙겨줄 수 있으며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느닷없이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건네거나 유력자의 자식을 채용하지 않고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투표가 매번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약속을 재확인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서며 선조들의 유산과 후손들에 대한 약속에 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민주당을 지지하건 공화당을 지지하건 무소속을 지지하건 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리노이주 게일스버그에서 만난 근로자들을 위해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메이택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노조원으로 소속돼 있던 직장을 잃었으며 지금은 시간당 7달러짜리 일자리를 놓고 자식 세대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면 매달 4,500달러에 이르는 아들의 약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여, 눈물을 삼키던 실직 가장을 위해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의지와 의욕을 갖췄지만 대학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는 이스트 세인트루이스의 어느 여학생, 그리고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천 명의 학생들을 위해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진 마십시오. 대도시와 시골에서, 식당과 공원

the health benefits he counted on. More to do for the young woman in East St. Louis, and thousands more like her, who has the grades, has the drive, has the will, but doesn't have the money to go to college.

Don't get me wrong. The people I meet in small towns and big cities, in diners and office parks, they don't expect government to solve all their problems. They know they have to work hard to get ahead and they want to. Go into the collar counties around Chicago, and people will tell you they don't want their tax money wasted by a welfare agency or the Pentagon. Go into any inner city neighbor-hood, and folks will tell you that government alone can't teach kids to learn. They know that parents have to parent, that children can't achieve unless we raise their expectations and turn off the television sets and eradicate the slander that says a black youth with a book is acting white. No, people don't expect government to solve all their problems. But they sense, deep in their bones, that with just a change in priorities, we can make sure that every child in America has a decent shot at life, and that the doors of opportunity remain open to all. They know we can do better. And they want that choice.

Alongside our famous individualism, there's another ingredient in the American saga. A belief that we are connected as one people. If there'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f there's a senior citizen somewhere who can't pay for her prescription and has to choose between medicine and the rent, that makes my life poorer, even if it's not my grandmother. If there's an Arab American family being rounded up without benefit of an attorney or due process, that threatens my civil liberties. It's that fundamental belief-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that makes this country work. It's what allows us to pursue our individual dreams, yet still come together as a single American family. E pluribus unum. Out of many, one.

Yet even as we speak, there are those who are prepar-



Barack Obama greets U.S. soldiers in Kuwait, July 18, 2008.

2008년 7월 18일 버락 오바마가 쿠웨이트 주둔 미국 장병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에서 제가 만난 국민들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기를 원합니다. 시카고 주변 카운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사회복지 부처나 국방부가 혈세를 낭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심 거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신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TV를 끄고 책을 읽는 흑인은 백인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없애지 않는 한 자녀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며 기회는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진리를 뼈 속 깊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택을 원합니다.

ing to divide us, the spin masters and negative ad peddlers who embrace the politics of anything goes. Well, I say to them tonight, there's not a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not a black America and white America and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e are one people, all of us pledging allegiance to the stars and stripes, all of us defen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end, that's what this election is about. Do we participate in a politics of cynicism or a politics of hope? ... I'm not talking about blind optimism here - the almost willful ignorance that thinks unemployment will go away if we just don't talk about it, or the health care crisis will solve itself if we just ignore it. No, I'm talking about something more substantial. It's the hope of slaves sitting around a fire singing freedom songs; the hope of immigrants setting out for distant shores; ... the hope of a skinny kid with a funny name who believes that America has a place for him, too. The audacity of hope!

■

널리 알려진 개인주의와 더불어 미국의 전설을 잉태한 또 다른 자양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민족이라는 믿음입니다. 시카고 남쪽 어느 지역에 글을 못 읽는 어린이가 있다면 설사 그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제게는 문제가 됩니다. 어딘가에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비와 월세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노인이 있다면 설사 그 노인이 제 친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제 삶은 가난해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이나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된 아랍계 가족이 있다면 제 인권에도 위협이 미칩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은-내가 바로 내 형제·자매의 보호자라는-그와 같은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각자가 개인의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 안에 뭉칩니다. 에 플러리버스 우념(E pluribus unum). 다수가 모여 하나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무리들, '묻지마' 식의 정치를 방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보적인 미국 혹은 보수적인 미국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며 성조기를 앞에 두고 충성을 서약했으며 미합중국을 수호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냉소의 정치와 희망의 정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저는 지금 맹목적인 낙관론을 - 입만 다물고 있으면 실업률이 해소될 것이라거나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거의 의도적인 회피론을 -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다 실제적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닥불을 둘러싸고 자유위 노래를 부르는 노예들의 희망을, 긴 항해를 앞둔 이만자들의 희망을, ... 미국이 자신을 위한 땅이 될 것이라고 믿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빼적 마른 소년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희망입니다! ■

Dire Consequences, Immeasurable Sacrifices

Remarks Against Going to War with Iraq (Chicago, Illinois, October 2, 2002)

암울한 결과, 헤아릴 수 없는 희생

이라크전 반대 연설 (2002년 10월 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Stand before you as someone who is not opposed to war in all circumstances. The Civil War was one of the bloodiest in history, and yet it was only through the crucible of the sword, the sacrifice of multitudes, that we could begin to perfect this union, and drive the scourge of slavery from our soil. I don't oppose all wars.

My grandfather signed up for a war the day after Pearl Harbor was bombed, fought in Patton's army. He saw the dead and dying across the fields of Europe; he heard the stories of fellow troops who first entered Auschwitz and Treblinka. He fought in the name of a larger freedom, part of that arsenal of democracy that triumphed over evil, and he did not fight in vain. I don't oppose all wars.

After September 11, after witnessing the carnage and destruction, the dust and the tears, I supported this administration's pledge to hunt down and root out those who would slaughter innocents in the name of intolerance, and I would willingly take up arms myself to prevent such tragedy from happening again. I don't oppose all wars. And I know that in this crowd today, there is no shortage of patriots, or of patriotism.

What I am opposed to is a dumb war. A rash war. A war based not on reason but on passion, not on principle but on politics. Now let me be clear - I suffer no illusions about Saddam Hussein. He is a brutal man. A ruthless man. A man who butchers his own people to secure his own power. ... He's a bad guy. The world, and the Iraqi people, would be better off without him.

I know that even a successful war against Iraq will require a U.S. occupation of undetermined length, at undetermined cost, with undetermined consequences. I know that an invasion of Iraq without a clear rationale and without strong international

여러분 앞에 선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북전쟁은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지만 칼에 의한 심판과 수많은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노예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통합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조부는 진주만 폭격이 감행된 이튿날 자원 입대하여 패튼 군단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유럽 전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으며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링카에 먼저 진주한 동료 병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악을 응징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으로서 싸웠으며 그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9·11테러 직후 살육과 파괴, 흠먼지와 눈물을 목도한 저는 불관용의 미명 하에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집단을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그러한 참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저 자신이 무기를 들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모두 애국자이며 애국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전쟁입니다. 경솔한 전쟁입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에, 원칙이 아닌 정략에 근거한 전쟁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담 후세인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잔혹한 인간입니다. 무자비한 인간입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의 국민을 도살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악한입니다. 그가 제거된다면 세계와 이라크 국민들은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설사 이라크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 투입되고 예측 불가능한 기간에 걸쳐 미군이 주둔해야 하며 결과조차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명확한 근거와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이라크 침공이 중동의 불씨를 키울 뿐이며 아랍권에

support will only fan the flames of the Middle East, and encourage the worst, rather than best, impulses of the Arab world, and strengthen the recruitment arm of Al Qaeda. I am not opposed to all wars. I'm opposed to dumb wars.

The consequences of war are dire, the sacrifices immeasurable. We may have occasion in our lifetime to once again rise up in defense of our freedom, and pay the wages of war. But we ought not—we will not—travel down that hellish path blindly. Nor should we allow those who would march off and pay the ultimate sacrifice, who would prove the full measure of devotion with their blood, to make such an awful sacrifice in vain. ■

서 최선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최악의 상황만을 조성할 것이고 알카에다 조직의 확장을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리석은 전쟁에 반대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암울하며 희생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이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참가하여 종국에는 제물로 바쳐질, 자신들의 피로써 헌신을 증명하게 될 젊은이들이 헛되이 희생되도록 좌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

“What I am opposed to is a dumb war.
A rash war.
A war based not on reason but on passion,
not on principle but on
politics.”



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s his Inaugural Address from the West Front of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DC, January 20, 200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 20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웨스트프론트에서 취임 연설을 행하고 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전쟁입니다.
경솔한 전쟁입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에,
원칙이 아닌 정략에 근거한 전쟁입니다."